



서울대학교 同窓會報

동창회 지표 ● 참여하는 동창회 ● 노력하는 동창회 ● 영광스런 동창회

發行人 金在淳
編輯人 鄭宗澤
印刷人 金映宰

發行所
서울대학교總同窓會
121-040 서울特別市 麻浦區 桃花洞18-2
☎ 702-2233~5 · FAX: 703-0755

銀行계좌番號 7500875
對替口座 010017-31-0621565

제 207 호

1976. 4. 13 등록번호(서)라-137호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News

1995년 6월 1일 월 간

【1】



커버스토리

「法大 百年」1회 졸업생 —醒 李 雋열사

관약춘추

교육개혁이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발족된 「韓國大學同窓會協議會」는 앞으로 활동여하에 따라서 대학교육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 모두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전국 96개 대학가운데 91개 대학동창회가 참여한 「大同協」은 본회가 주동이 돼서 작년 6월부터 협의에 들어가 지난 4월 24일 창립총회를 열어 초대회장에 金在淳同窓會會長을 선출하고 회칙과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창립총회가 끝난 다음 각대학동창회장들은 청와대로 본會고문인 金泳三대통령을 방문, 오찬을 함께 하며 대학발전에 대해 환담을 나눴다.

일단, 성공적인 출범이다. 그러나 「大同協」이 교육관계자는 물론, 3백60만 대학인의 기대에 부응해서 대학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지금부

터의 활동에 달려있다. 대부분의 동창회 조직이 그렇듯이 이름만 내걸고 일을 하지 않으면 상호간의 친목은 도모할 수 있겠지만 대학교육 발전에는 도움을 주지 못한다. 「大同協」은 우선 이같은 동창회 조직의 속성을 탈피해서 실질적으로 한국대학교육의 발전에 기여하는, 다시말해서 동창회 조직의 質을 한단계 높은 최초의 동창회 조직이 돼야 할 것

大同協에 바란다

이다.

누구나 대학교육의 중요성은 강조하면서 현실에 바탕을 둔 대학발전방향에 대한 진지한 논의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여론수렴에는 소홀한 것 같다. 이 일을 「大同協」은 할 수 있을 것이다. 사업계획에 포함돼 있는 「세미나」나 「심포지움」을 통해서 대학교

육의 문제점들을 심도있게 토론하고 여론화시켜서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입시제도의 개선문제라든지, 위기에 처한 대학재정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해서 정책에 반영되도록 해야할 것이다.

대통령이 교육투자를 현재의 GNP대비 3.9% 선에서 5%로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그래도 세계화에 걸맞는 대학을 만들기에는 어렵도 없는 것이 오늘날 우리 대학의 현실이다.

대학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기여압학제가 바람직하다면 학부모든 각계인사들이 모여 이를 논의하고 결과를 정책당국에 건의할 수도 있다. 이밖에도 「大同協」은 대학동창회간의 유대강화를 통해서 동창회를 활성화시키고, 모교를 위해 꼭 필요한 동창회를 만드는데 기여할 수도 있을 것이다.

끝으로 「大同協」은 본회가 주동이 돼서 발족됐다. 본會 임원은 물론 모든 회원이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應)

커버스토리

李儁열사 흉상제작 증정기로 金在淳회장, 기념박물관에

대한항공 협찬받아

오는 8월 4, 5일 이틀간에 걸쳐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사단법인 「李 儁아카데미(원장 李基恒·60년 商大卒)」주최로 광복50주년 기념 및 李 儁 열사 88주기 추모를 위한 「유럽 한민족 제전」이 본회를 비롯한 국가보훈처, 한국일보사, 전국 경제인연합회 후원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李 儁 열사는 올해로 개교 1백주년을 맞이한 법과대학의 最前身인 한성법관양성소 제1

회 졸업생으로 일제치하에서 고종반년 88년전, 고종 황제의 密旨를 받들어 목숨을 걸고 헤이그에 밀사로 파견돼, 대한독립과 세계평화를 전세계인에게 외치고 장렬하게 순국한 애국지사이다.

근대법학교육·근대사법 1백주년을 기념해 李 儁 열사의 묘적지를 참배, 고귀한 정신을 기리는 한편 전세계에 한민족의 혼을 알리기 위하여 李 儁 열사가 밀사로 파견됐을 당시 묵었던 「드용(De Jong)호텔」을

매입, 「李 儁 열사기념박물관」으로 개조, 보존기로 했다.

이에 본회 金在淳회장을 비롯한 회장단은 대한항공(회장 趙重勳)의 협찬을 받아 李 儁 열사의 흉상을 제작(조각가: 白文基 예술원 회원·관악회 감사), 기념박물관에 증정할 계획이다.

기념박물관 개관과 더불어 열리는 학술심포지움, 경축·추모·헌화식등의 행사에 국내외 동문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

개교 50주년행사 준비한창 기념관 건립·「열린 음악회」등 추진



시계방향으로 본회 金在淳회장, 鄭宗澤상임부회장, 李世震사무처장, 모교 姜昌淳발전기금상임이사, 鮮于仲皓부총장, 李壽成총장, 安京煥기획실장.

지난 16일 본회 金在淳회장은 모교 李壽成총장과 신라호텔에서 조찬모임을 갖고 개교 50주년 기념행사에 관한 현안을 논의했다.

本회 鄭宗澤상임부회장, 李世震사무처장, 모교 鮮于仲皓부총장, 安京煥기획실장, 姜昌淳발전기금상임이사등이 참석

한 이날 모임에서는 개교5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개교 50주년 기념관」을 건립, 동문·교직원·학생들은 물론 지역주민들을 위한 문화·체육공간의 조성방안을 협의했다.

관악캠퍼스 정문과 체육관사이의 부지에 연건평 3천평, 총예산 1백억원으로 건축될 이

기념관에는 기념전시실, 홍보실, 연주실등 문화시설과 실내수영장, 볼링장등 레포츠시설 및 편의·휴게시설이 들어 서게 된다.

이날 모임에서 기념관은 대학이 갖춰야 될 기본시설이라는 점에 의견을 모았으며 부대시설로서 정년퇴임한 원로 및 여성교수를 위한 연구공간을 확보해, 스승과 선배를 생각하는 마음을 갖도록 했다.

이에 따르는 기금조성 및 세부적 사항은 본회사무처와 모교 기획실이 빠른 시일내 협의를 거친 뒤 시행기로 했다.

한편 모교는 개교50주년을 맞이하여 국내외 동문들을 초청, 「모교 방문의 날」행사와 「열린 음악회」유치등을 계획하고 있다.

(變)

민주화운동 기념조형물 건립 6월8일 기금모금행사 개최



민주화운동 기념조형물 건립추진위원들이 민주인사유가족들과 논의하고 있다.(맨우측 서있는 동문이 李光澤위원)

모교에는 4·19혁명을 기리는 기념탑이 자리하고 있으나 그 이후 줄기차게 이어져온 서울대인의 민주화운동 과정과 그 간절했던 시절을 상징하는 기념탑은 찾아 볼 수 없다. 이런 뜻에서 「서울대 민주화운동 기념조형물 건립추진위원회」는 서울대인의 뜨거운 몸짓을 형상화한 조형물을 모교 교정에 건립, 헌정기로 했다.

「서울대 동문들의 뜻과 정성을 모아서 4·19혁명 이래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위해 동문들이 바쳤던 헌신과 고귀한 희생을 기리고 그 역사적 의미를 형상화한 기념조형물을 모교 교정에 세우는데 진력을 다할 것입니다」

서울대 민주화운동 기념조형물 건립추진위원회는 조형물 설계와 건립, 기금을 조성하는데 헌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

지난해 6월24일 결성, 柳根一(조선일보 논설위원), 白樂晴(서울대교수), 安秉直(서울대교수), 金晉均(서울대교수), 洪性宇(변호사), 金德龍(국회의원), 李富榮(국회의원)등문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同會는 금년 12월까지 5억원의 기금을 마련해 기념조형물을 건립할 계획이다.

추진위원회는 앞으로 모교와 조형물의 건립장소, 구조, 주변조경등을 협의하고 기념조형물

의 설계안은 모교 미대교수 및 유관인사로 구성된 분과위원회에서 공모,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6월8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개최될 조형물 건립기금 모금을 위한 「6월, 서울대 동문의 밤」행사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추진하는 한편 학계, 정계, 관계, 재계등 각분야별 자문위원 모임을 통해 회원을 확대, 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추진위원인 李光澤(75년 法大卒·국민대교수)등문은 「동문들이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여 1인1구좌(1만원이상)씩 기탁, 조형물 건립에 초석을 다지고 미래를 이끌고 갈 후배들이 그 고귀한 정신을 머리숙여 기리고 가슴에 새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추진위원회: 서초동 1600-9 우성빌딩 701호, 전화 584-0053·팩스 585-0054)

「자랑스러운 서울大人」 후보추천을 받습니다

—인격·덕망있고 국가발전에 기여한 분—

서울大人的 영예이며 귀감이 되는 「자랑스러운 서울大人」의 후보를 추천 받습니다. 21만 동문중에서 선정되는 서울大人은 우리들의 표상이기도 합니다.

매년 개교 기념일에 발표되는 수상자는 모교출신 동문이거나 모교교수로 장기간 봉직하신 분들중 가급적 60세를 넘으신 분으로 인격과 덕망을 겸비하고 국가와 사회발전에 크게 기여한 분이 대상이 됩니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이 행사에 각계동문들께서 알맞는 후보인물을 추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는 8월15일까지 모교 기획실(전화 880-5081~4)이나 본회 사무처(전화 702-2233)로 후보자의 인적사항과 업적을 소개하는 글을 함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서울대학교총동창회장 金在淳
서울대학교총장 李壽成

「개교50주년 기념표어」 현상공모

1996년 개교 50주년을 맞아 모교에서는 각종 행사등에 사용할 표어를 공모합니다.

오는 7월 31일까지 모교 기획실(전화 880-5086·팩스 889-7489)로 보내주시면 관련 심사위원이 심의후 개별 통지하고 당선작 1편에 30만원, 가작 2편에 각각 10만원을 드립니다.

동문여러분의 많은 참여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 1.공모 대상:개교 50주년을 기념하는 상징적인 표어 (Catch Phrase).
- 2.응모 자격:교직원, 학생, 동문등 서울대인을 비롯한 일 반인.
- 3.응모 방법:① 모교가 지향하는 교육목표에 적합한 내용으로 모교 발전방향을 간결하게 표현한 것. (예:서울 600년 기념사업의 경우, 「서울은 세계로, 세계는 서울로」)
② 글자수는 15자 내외로 하며, 중복 응모 가능함.

서울대학교 총장 李壽成

치대동창회

회장에 金讚淑동문 선출

金光男학장 명예회장에 위촉



지난 26일 치대동창회 정기총회에서 金讚淑신임회장이 취임사를 하고 있다.

齒科大學同窓會(회장 李春根)는 지난달 26일 모교치대 제1강의실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동창회장인사에 이어 신임 金光男학장은 축사를 통해 『세계적인 대학으로 나아가기 위해 교육시설·환경개선 등을 중심으로 치과대학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히고 『동문들의 많은 지원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金正均대학치의사협회장은 치과계의 발전과 단합에 서울치대의 주도적 역할을 당부했다.

李회장은 李種昕 전임학장에게 감사패를 증정하는 한편 신임 金光男학장에게 동창회명예회장 위촉장을 전달했다. 또한 원로회원 7명에게 기념품을 증정한 후, 신임회원들에게는 동창회패를 전달했다.

한편 평의원회에서 이미 통과된 94년도 회무, 감사보고와

95년도 예산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후, 이날의 주요안건인 임원개선이 있었다.

신임회장에는 金讚淑(60년卒·청아치과병원장) 동문이 선임됐으며, 감사에는 魚秀喆(56년卒·어치과의원장), 崔在京(57년卒·최재경치과원장), 張

相憲(65년卒·장상헌치과원장) 동문이 연임됐다. 부회장을 비롯한 나머지 임원은 회장에게 일임했다.

신임 金회장은 『임원들뿐만 아니라 전회원이 모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동창회에 적극 참여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행대원동창회

부회장에 韓昇洙동문 추대

行政大學院同窓會(회장 姜敏求)는 지난 17일 롯데호텔에서 95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同會 부회장인 曹相鎬세계한민족체전위원장, 鄭旻謨해외선박(주)회장, 金在鎬(주)건영고문등을 비롯해 80여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同會 상임이사인 金 漢한국청소년연맹총재는 모교 정보통신행정연구관 건립지원금으로 50만원

을 출연했다.

한편 회장단 임기 만료에 따라 제18대 회장에 姜敏求회장이 연임됐으며, 韓昇洙(대통령비서실장) 상임이사를 부회장으로 추대하는 등 소폭의 임원개선이 있었다.

同會는 정보통신행정연구관이 완공되는 오는 7월, 기념식을 겸한 「동문의 날」 행사를 개최하기로 했다.

농대동창회

신임회장 朴振煥동문



農科大學同窓會(회장 沈鍾燮)는 지난 13일 모교 대형강의실에서 1백여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95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모교지원동창회 활동을 강화해 나가기 위한 방안으로, 재단기금을 확보, 법인을 설립하기로 했으며 崔主鎬본회명예회장(39년卒·우성그룹회장)은 동창회기금으로 1천만원을 출연하고 『농대 동창회 발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주요안건인 임원개선에 서는 沈회장의 후임으로 朴振

煥(前농협전문대학장) 동문이 선임됐다. 또한 감사에는 鄭琦秀(건국대명예교수), 趙鎭涉(모교교수)동문을 각각 선임하고 다른 임원들은 회장에게 일임했다.

신임 朴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선진화된 농업과 농촌을 건설하는데는 입학할 때의 점수보다 흙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필요하며, 이것이 곧 모교의 常綠정신』이라고 강조하고 『동창회의 활성화를 통해 이러한 상록정신을 한 곳에 모아 한국농업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同會는 이날 총무이사로 1년간 애써온 李茂根(모교교수)동문에게 감사패를 증정하고 그 동안의 노고를 치하했다.

총회를 마친 후, 입학35주년을 맞는 60동기회는 기념식을 갖고 은사에게 기념품을 증정하는 한편 모교에 8백만원 상당의 영사기를 기증했다. <志>

새 노동부장관에 陳 稔동문



지난 25일 金泳三대통령은 노동부장관에 陳 稔(63년 商大卒·前동자부장관)동문을 임

명했다.

경제기획원 물가정책국장·차관보, 해운항만청장, 재무부 차관, 경제기획원차관, 동자부장관, 보건사회연구원 이사장을 역임한 바 있는 신임 陳장관은 행정경험이 풍부하고 업무추진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陳장관은 그동안 美스탠포드대학과 전북대학에서 강의를 해왔다.

가정대동창회

10월 대동제 기간중 바자회 열기로



가정대동창회는 지난 13일 「스승의 날」기념행사를 가졌다.(앞줄 좌측 첫번째 安承堯학장, 뒷줄 가운데 李仁子회장)

家政大學同窓會(회장 李仁子)는 지난 4월25일 「한우리」에서 10여명의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8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95년도 결산보고, 모교발전기금 모금과 부회장 증원에 대한 경과보고가 있었으며, 가정대학의 역사를 담게 될 화보집 발간을 위한 자료수집등 기념사업 준비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또한 오는 10월 대동제 기간 중 모교발전기금 마련을 위한 의류바자회를 개최하기로 결의했다.

한편 同會는 지난 13일 방배동 소재 「한지박」에서 스승의 날 기념행사를 가졌다.

스승에게 꽃을 달아 드리는 것으로 시작된 이날 행사는 시종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서 진행됐으며, 安承堯학장을 비롯해 林元子·李基春교수, 金聲連·牟壽美·李惠秀 명예교수등은사 10여명이 초청됐다.

李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건

강하신 모습을 보니 기쁘고 감사하다」고 말하고 『모교와 동창회를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同會는 모교 재직교수를 위

한 케익과 꽃바구니를 미리 전달한 바 있으며, 이날 참석한 회장단과 기별이사는 준비한 선물을 증정하고 스승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간호대동창회

楊銀淑회장 재선임

看護大學同窓會(회장 楊銀淑)는 지난 4월6일 모교병원 본관 C강당에서 95년도 신입회원 환영회 및 제43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개회사, 洪麗信학장의 격려사에 이어 신입회원들에 대한 졸업메달 전달식이 있었으며, 최근 박사학위를 받은 동문들에게는 학위취득기념패를 증정했다.

94년도 동창회 사업과 회계 및 감사보고를 받은 동문들은 95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하고 이 날의 주요 안건인 새 임원을 선출했

다.

同會 회장에는 楊銀淑 현 회장이 연임됐으며, 부회장에는 朴明子, 金南連, 李愛珠, 俞淑子, 鄭蓮江동문이 각각 선임됐다.

이번에 새로 선임된 임원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상임이사: 金錦順동문 ▲기획이사: 金彩淑, 吳世英동문 ▲홍보이사: 徐文子, 洪性恩동문 ▲장학이사: 朴寬順, 金明淑동문 ▲재정이사: 徐英卿, 趙明淑동문 ▲서기이사: 申恩淑, 金禮卿동문 ▲감사: 權五謙, 金仙漢동문

공대동창회

「엔지니어하우스」 8억 모금

工科大學同窓會(회장 李達雨)는 지난 21일 모교 공대 교수회의실에서 95년도 정기총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李회장의 개회사, 韓松曄학장의 인사가 있는 후, 최근 정년퇴임을 맞은 李海京, 尹定燮, 玄炳九교수에게 기념품을 증정하고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했다. 특히 내년에 정년을 맞는故 李在坤교수의 자제에게도 同會에서 마련한 기념품을 증

정하고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참석자들은 회무, 감사보고를 받은 후, 94년도 동창회 사업실적 및 결산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 95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심의했다.

엔지니어하우스 건립계획 추진에 대한 중간보고에서는 5월 20일 현재 기금 출연자 5백33명, 모금액은 총7억9천여만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志)

시카고지부

7월 세미나·야유회 갖기로



시카고支部同窓會(회장 朴泳圭)의 수석부회장인 李漢植 동문(사진)이 지난 23일 本會를 방문, 李世震사무처장과 환담을 나누고 동창회 운영에 대한 현안을 협의했다.

同지부의 차기회장에 내정된 李동문은 「올해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3~4차례의 이사회와 골프대회, 송년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하고 「특별히 동문강사를 초빙해 건강이나 환경, 경제문제등에 대한 세미나를 여는 한편 오는 7월에는 동문 및 가족들이 즐길 수 있도록 음악감상을 겸한 야유회를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本會 李世震사무처장은 「앞으로 시카고지부도 총동창회 및 타지부와의 결속을 더욱 다져 상호 친목도모는 물론 모교 발전에 힘쓰자」고 말했다.

캐나다온타리오지부

「여성동문 모임」 개최

캐나다온타리오支部同窓會(회장 李京姬)는 지난 4월22일 李회장 자택에서 여성동문모임을 가졌다.

토론토 근교에 거주하는 30여명의 여성동문중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화전 및 연주

회 개최, 同窓會旗 마련등에 관한 논의를 펼치며 여성동문만의 즐거운 자리를 가졌다.

李회장은 앞으로 매년 3회 이상 여성모임을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燮)

약대14회

李世民신임회장 선출



약대14동기회는 5월22일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좌로부터 權景坤회장, 李敬壽여자동기대표, 黃善淵 前약대동창회장, 李世民신임회장, 李在燮부회장)

약대14동기회(회장 權景坤)는 5월22일 모교 교수회관에서 정기총회를 가졌다.

미국에서 일시 귀국한 金東煥동문을 비롯 30여명의 동기들이 참석한 이번 모임에서는

李世民(산호약국)부회장을 회장으로 선출하는 한편 재정확충을 위해 연회비를 다시 걷기로 합의했다.

신임李회장은 동창회에 대한 동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하며 『동창회를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60세의 나이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金東洙동문을 축하하고 이에 金동문은 동기들의 성원과 관심에 감사한다며 붓통을 선사, 변함없는 동기애를 과시했다.

상대12회

동창회 사무실 마련

상대12동기회(회장 李正馥)는 그동안 숙원사업이었던 동창회사무실을 서울 서초구에 마련했다.

孫燮準(뉴크사장)동문이 출연한 1억원의 기금으로 마련된 사무실은 서초구 반포동 45의 2 지성빌딩 5층(법원연수원 옆 주유소 골목)에 위치해 있다. 상대12회만의 독자적인 사무실로 꾸며진 이곳은 회원들 상호간의 연락 및 친목도모를 위한 각종 오락과 소일거리를 준비해 두고 지난 4월부터 운영되고 있다.



동문을 선임했고 심포지움·재정·50주년史·행사등 4부분으로 나눠 준비위원회를 결성했다.

외교학과

새 회장에 姜賢旭씨

외교학과동창회(회장 柳鍾卓)는 지난 4월2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60여명의 동문이 참석한 이날 총회에서는 94·95년도 동창회보고 및 임원개선이 있었다. 개선된 임원으로는 회장에 姜賢旭(前농수산부장관)동문, 수석부회장에 金駒(극동상공대표이사)동문, 감사에 金淳吉·金相應동문이다.

화학공학과

최다참석期에 선물

화학공학과동창회(회장 金泰文)는 지난 5월2일 상공회의소 12층 상의클럽에서 1백여명의 동문들이 참석한 가운데 춘계정기총회를 개최했다.

徐文濩동문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총회에서는 文相翕학과장의 모교현황에 대한 설명과 선후배동기간의 대화의 시간을

마련, 우애를 다졌으며 최다참석期에게 선배들이 회사한 양주 6병을 시상했다.

전기공학과

정기총회서 사업결산

전기공학과동창회(회장 文熙晟)는 지난 4월27일 삼성동 무역회관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50여명의 동문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년간의 사업을 결산하고 李達雨 공대동창회장의 엔지니어하우스 설립계획 보고가 있었으며 동창회와 모교의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상대5·7회

李相得회장 선임

상대5·7동기회(회장 朴聖麒)는 5월17일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李相得(국회의원)동문을 신임회장으로 선출했다. (泳)

농화학과

새 회장에 洪性根동문

농화학과동창회(회장 李致燮·사진左)는 지난 5월21일 모교 농화학과 「사색의 동산」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2백여명의 동문들이 참석한 이날 총회에서는 洪性根(Rohm and Haas 사장·사진右)동문을 회장에 선임하는 한편 농화학과 창립50주년 기념행사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농화학과 창립 50주년 기념행사는 내년 5월 개최할 예정이며, 조직위원장은 林善旭(모교교수)동문, 고문에는 李春寧(모교명예교수)동문, 대회장에는 金載勳(모교명예교수)

동문을 선임했고 심포지움·재정·50주년史·행사등 4부분으로 나눠 준비위원회를 결성했다.

법대15회 95년도 회원명부 발간



5월17일 개최된 법대15동기회 정기총회(좌로부터 네번째 金東載회장)

법대15동기회(회장 金東載·보람은행장)는 5월17일 조선호텔에서 정기총회를 개최, 金회장을 연임시켰다.

이번 총회에서는 李相禹(서강대교수), 孫京植(제일제당회

장), 崔鍾泳(법원행정처장), 李海碩(서울상호신용금고 상무)동문을 비롯, 1백여명에 달하는 동기들이 참석했으며 95년도 회원명부를 발간, 배포했다.

서울대 동문에 고함

“同門의 一心으로 十門의 和同을...”

깜깜한 동굴안에 우상만이 들끓을때 한가닥 빛이 들어온다면 실로 生光스럽다. 바로 그 빛이 들어오는 통로가 門이요, 窓이다. 이 소중한 문과 창을 같이한 인연으로 우리들 21만 주체앞에는, 지금 동문·동창의 이름이 有斐롭다. 바로 서울大同門... 따라서 「眞理는 나의 빛 (Veritas Lux Mea)」 그 빛을 함께 하계한 모교의 校識는 그래서 우리 동문가족들의 큰 창문을 밝혀주는 一同의 문패이다.

예로부터 「小人은 同而不和요, 君子는 和而不同」이라 하

였다. 흔히 同으로 하여는 不和가 나오기 쉽기에 아들이 成冠한 새 가정에서 姑婦간은 같은 女(性)라는 同(性)때문에 不和가 빠르고, 사이좋았던 형제간에서도 같은 男(性)이라는 同(氣)으로 하여 不和도 생겨난다. 하지만 夫婦간의 결합에서는 異(性)라는 不同을 뛰어넘고서 사랑의 和를 이룩하기에 그대로 不同의 和가 꽃핀다. 그래서 「君子之道는 造端乎夫婦」라 하였다.

여기서 同은 반드시 不和 아닌 和로 승화되어야만 하니 그 和를 이루는 同이 바로 和同大

同이다. 이를 元曉는 十門和靜으로 밝혔다. 즉 夫婦의 和를 중심으로 하여 父子, 朋友등 五倫이 모두 바르게 만날때, 그 五倫으로 맺어지는 十人사이의 十門이 大和를 이룰 수 있으니, 그대로 十門의 和靜이다. 그러므로 우리 서울대동문들은 이 大同의 門부터 활짝 열고 十門和靜을 君子之道로 실현해야만 한다. 이때, 大同의 門은 밖에서도 열고(開) 안에서 열어야한다(闢). 바로 開闢의 문이다. 開闢을 통해 문을 안팎으로 열 때, 門은 항상 열려있으니 문이 없는 것처럼



崔昌圭

(62년 文理大卒) 독립기념관장

자유롭다. 그것이 無門의 大道이니 바로 이를 우리 대통령 동문도 특별 강조하고 있다.

이같은 無門의 大道는 바로 二人이 同心으로 이루는 二而一의 한마음(一心)으로부터 열린다. 그래서 二人이 同心이면, 그 날카로움(其利)은 쇠도 끊는다(斷金)고 하였다. 이같이 마음(心) 앞에 붙는 同(字)이 가장 소중하다. 그 二人同心의 길은父子간에서는 孝요, 朋友

간에서는 信이다. 五倫에서 二人同心으로 十門이 和靜할 수 있는 바로 그 길을 우리는 모교의 杏壇아래 師道로써 배우고 닦았다.

光復半世紀, 이때 半은 二人同心으로 만날때 바로 二而一의 完으로 실현된다. 半을 完으로 실현할 수 있는 이 二人同心의 和靜은 근본적으로 부자간의 孝倫理로부터 출발된다. 바로 爲仁之本의 그 孝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의 모교앞에 이 孝의 大同門부터 활짝 열어야만한다. 이를 위해 모교의 母(字)앞에 어머님같은 孝를 올리고 親師의 親(字)앞에서 師父一體의 敬도 받들어야 한다. 그래서 二人同心으로 이루는 大同門이 바로 統一의 원리요, 孝를 통해 참된 나의 中心부터 회복하는 것이 바로 光復의 捷徑임을 이 광복반세기의 民族史앞에 우리 同門은 분명히 밝혀야만 한다.

근래에 세계화에 관한 논의가 분분하다. 우리나라가 일류 선진국이 된다는 것이 세계화라면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고, 마땅히 세계화는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하며, 또 강력히 추진되어야 한다.

또 각자가 하는 일이 국제적인 수준이나 세계적인 경지에 이르는 것이 세계화라면, 적어도 몇 가지 분야에서는 세계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바둑, 체육, 예술계에는 세계적인 인물도 많고 그 수준도 자랑할만하다 하겠다. 기업이나 기업인들도 상당히 세계화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종교계의 규모나 활동상황은 가히 세계 초일류인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의 학계, 교육계, 문화계, 언론계, 출판계가 세계화되어 있다는 징표는 찾아보기 어렵다. 또 정치인이나 행정가가 세계적인 시야를 가지는 것은 바람직스럽지만 세계화될 수도 없는 것이고, 우리의 군사력이 세계일류 수준인 것은 사실이지만, 군인들이 세계화되어서는 곤란한 일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마땅히 세계화되어야만 할 것으로서 전혀 안되어 있는 곳이 대학이다. 대학의 주된 기능인 교육과 연구에서 우리 대학이 세계 수준과 심히 동떨어져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



세계화와 大學

다. 그밖에도 우리 대학이 세계의 대학과 특이하게 다른 점이 몇가지 있다.

우리 대학이 태어난지 50년이 되어오는 동안 대 학구성원이 자치를 해본 일이 거의 없다. 자치를 못 해본 대학에서 교육을 받고 연구를 해온 사람들이

민주화와 지방자치의 시대에 적절한 일을 할 수 있을까 걱정된다.

국민들에게 삶의 질이 문제가 되는 것처럼 대학에서의 쾌적한 환경과 진지한 분위기는 필수불가결의 것이다. 우리 대학의 조악한 현실은 오랜 동안에 축적되어온 것으로, 이의 개선없이 세계화된 대학으로 나아가기는 어렵다.

우려해야 할 일 중의 하나는 대학 구성원들이 학문 아닌 일, 대학 밖의 일에 너무나 민감하다는 것이다. 연구하고 공부해야 할 사람들이 본연의 일 이외에 너무 많이 나대는 것도, 세계화와는 동떨어진 현상이다.

학자의 생활은 쾌적한 환경속에서조차 삶을 꾸는 아픔을 견디는 것 이상의 노력이 요구되는 것이다. 과연 우리 대학이 대학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그같이 노력하는 국제적인 학자들을 몇이나 갖고 있는지 다시 생각해보아야 한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버릴 수 없는 것은, 강의실에서 젊은이들의 초롱초롱한 눈망울과, 뛰어다니듯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젊은 학자들을 수없이 보아왔기 때문이다. 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대학이 요원하기는 하지만 언젠가는 세계화가 되리라 믿는다.

(본보 논설위원)



「한국의 하천」을 펴내며



安守漢 명예교수

필자가 대우재단의 후원으로 「한국의 하천」이라는 책을 엮어서 민음사에서 출판했는데 몇 개 신문사에서 소개해 주었다. 책의 제목이 일반사람들에게는 별로 흥미가 없는 분야인데도 기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책내용에 해설까지 덧붙여 소개해주었다. 일반 독자들에게는 별로 흥미도 없는 이 책을 왜 신문지상에 소개해주었는지 생각해 보니 작년과 금년에 비가 적게 내려 각지방에서 용수부족소동이 일어났는데 이것이 그 원인인 것 같다.

이 책을 엮는데 있어서 하천공학을 전공하는 학자나 기술자뿐만 아니라 하천공학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기술했다.

이 책을 쓴 목적은 일반국민이나 정부와 공무원들이 홍수와 가뭄에 대해서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했기 때문이었다. 특히 정부와 공무원들이 홍수와 가뭄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리고 이와같은 자연재해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알도록 하기 위해 엮은 것이다.

필자가 수해와 가뭄에 대해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4~7년의 주기로 풍수년과 갈수년이 주기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풍수년에는 비가 많이 내려서 홍수피해가 많았고, 갈수년에는 용수부족으로 많은 고통을 겪어왔다. 1978~87년 사이 10년간의 홍수피해를 조사한 통계에 의하면 매년 6백50명의 인원과 2천5백억원(87년의 화폐가치)의 재산이 홍수로 인해 유실됐다.

홍수피해가 생길 때마다 정부는 홍수피해의 원인을 조사도 하지 않고 비가 많이 내려서 수해가 났다는 천재론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89년에 영산강제방의 유실로 나주시가 침수됐고, 90년에는 한강의 행주제방이 붕괴되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이들 두 홍수피해는 모두 사람 잘못으로 일어난 인재였다. 지금까지 발생한 홍수피해는 모두 인재지 천재는 한 건도 없었다. 정부가 홍수피해에 대한 조사연구를 해 적절한 공사를 했더라면 귀중한 인명과 막대한 재산의 유실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정부와 함께 국민들도 수해에 대한 관심이 없다.

용수문제도 마찬가지다. 인구는 증가하고 용수의 수요량은 점점 많아졌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세우지 않고 있으니... 4~7년마다 한번씩 용수부족과 홍수피해를 겪을 것인데 이와 같은 피해는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지대한 장애물이 될 것이다. 정부와 국민은 좀 더 홍수피해와 용수부족현상을 심각하게 생각해 주었으면 한다.



“그 장인에 그 사위”

(崔明彦 (67년 文理大卒) 모교자연대교수)



앞줄 좌로부터 두번째 장인 高允錫 모교 명예교수, 앞줄 맨우측 아내 高恩姬 덕성여대교수, 뒷줄 좌로부터 세번째 처남 高永律 모교 의대교수, 뒷줄 맨우측 필자)

미국 유학시절 필라델피아에서 아내를 만났다. 화학과 후배이자 물리학과 교수님의 따님이라는 소개를 친구로부터 받았으나 그때 나는 장인될 분과 함께 같은 캠퍼스에서 교편을 잡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었다.

많은 세월의 기다림 끝에 모교에서 교수생활을 할 수 있는 행운이 찾아왔으며, 80년대 초 귀국해 화학과에서 생화학연구실을 차리게 되었다. 그 당시 교육차관과 대학원생의 증가로 막 연구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는 중이었으나 아직 연구지원체제나 연구여건이 미흡했기 때문에 적지 않은 신입교수들이 많은 불평을 토로하고 있었을 때였다. 나 역시 다른 조교수들과 비슷한 심정으로 중앙도서관의 학술잡지가 부족하다거나 열람이 자유롭지 못한 점을 지적했으며, 동물사육장이 이용자 편의를 외면하고 있다는 등의 불평을 늘어놓았었다. 그러나 그때 장인께서는 자연대학장을 맡고 계셨기 때문에 얼마 안가서 누구누구의 사위가 말썽(?)을 부린다는 등의 소문

이 금새 귀에 들어왔고 나는 장인께서 보직을 맡고 계신 이상 더욱 처신에 주의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실감하기 시작했다. 그 후 장인께서는 부총장직을 맡으셨고 좋은 삶든,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주위사람들에 의해 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관심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교수직을 성실히 수행하는데 결코 도움이 되지 못하리라는 생각때문에 나는 가능한 한 교내활동에는 소극적이었다. 그러나 그간 내 전공분야인 화학과 생화학분야의 교외학회활동은 비교적 활

발히 참여했다. 돌이켜보건데 같은 캠퍼스에서 매일 함께 근무하면서 사위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 같다. 장인께서는 90년도 대한민국 과학기술상을 받으셨으나 그때 나는 외국에 6개월간 나가 있었기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으며, 장인께서 어려운 처지에 있으셨을 때 나는 실제로 어떠한 도움도 드리지 못했던 것 같다. 하지만 나는 은연중 장인의 교육이념, 학문방향, 또는 학사운영 등에 대해 적지 않은 영향을 받아 화학과 학과장직을 맡고 있었을 때, 「운영의 묘」를 살리는 데 장인으로 부터 많은 본을 받았다고 하겠다.

퇴임 후, 장인께서는 원광대학교에 출강하시고 남은 시간은 원광대학교에서 후원하는 원광 장애인복지관 관장으로 교육과 사회봉사활동을 하고 계시며, 아직도 과학정책수립 등에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그 정력에 경탄해 마지않는다. 이제 남은 것은 사위가 제 뉘을 하여 「그 장인에 그 사위」라는 말을 들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李信子 신임 미대동창회장

「미술의 해」조직위원으로 활약
“후배위해 도서관 만들고파”

『동문들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는 생각에 어깨가 더욱 무겁습니다』

미대동창회를 이끌어 가는 李信子(55년 美大卒)회장의 소감이다. 3천여명이 넘는 미대동문들과 함께 반듯한 일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생각만큼 쉽지 않아 고민이 많다는李회장.

『명부도 새로 발간해야 하고 전시회도 궁리중이지만 아직은 동창회기금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금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만나는 동문마다 회비이야기 하다 보면 빚쟁이가 된 것 같아 미안할 때도 있지만 동창회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 마다 하지 않는다는李회장은 동창회기금이 모이면 후배들을 위해 미술대학에 도서관을 만들고 싶다고 한다.

『전시회등으로 기금이 모이면 도서를 기증할 생각입니다. 전공서적을 위주로 한 미술 분야에 걸친 책들을 구비해 미대도서관을 만드는 것이죠』

어렸을 때부터 그림을 잘 그린다는 칭찬을 많이 들은 것이 미대를 진학하게 된 계기가 됐다는李회장은 1남3녀의 자녀중 셋이 미술을 전공했다.

『부모가 모두 그림을 그리니까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미술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아이들에게 강요하거나 반대하지 않았습니니다. 자신들이 스스로 원해서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렸을 적 고향 울진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잊을 수가 없어서 항상 자연을 주제로 한 작품을 한다는李회장은 현재 「미술의 해」조직위원을 맡고 있기도 하다.

『미술의 해 행사의 일환으로 공예분야를 대중에게 홍보할 수 있는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



니다』

한 작품을 할 때마다 최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한다는李회장은 동창회 행사에 동문들의 관심은 물론 총동창회를 비롯한 他동창회에서와 관심과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며 좋은 동창회를 만들기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 했다.

학생이, 그리고 동문이 신임할 수 있는 회장, 그런 회장이라는 믿음이 든 건 왜일까?

(泳)

동문찾아서

李吉女 신임 의대동창회장

“동창회기금 조성이 최대 목표”
茶道, 蘭기르기 전문가 수준

『동문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뭐든 안되겠습니까』

「여성이 회장을 맡아 제대로 일할 수 있겠느냐」는 일부의 杞憂에 대해 李吉女(57년卒·의료법인 길병원이사장)의대동창회장은 이렇게 답했다.

『내가 아닌 남을 위해 노력하면 결국 되더라』는 믿음은 58년 자성의원으로 출발, 현재 5개 자병원을 가진 의료법인으로 키우기까지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터득한 경험의 소산이다.

『모교의 연구기반 조성하고 교육시설 보완, 그리고 재학생 및 연구원에 대한 장학활동 확충을 위해 발전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라는李회장은 의대11회 동기회장, 20여년간 의대동창회 이사를 지냈고, 6년간 부회장으로 활동하며 모교지원과 동창회 발전에 일익을 담당해왔다.

최근에는 嘉泉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경기전문대학과 신명여고를 인수, 嘉泉학원 이사장에 취임해 인천시민을 위한 복지교육증진을 위해 전력투구하고 있다.

『시골학교 아이들을 진료하던 커다란 반사경을 쓴 의사선생님이 너무 좋아보여 주사도 먼저 맞곤 했다』는李회장은 소외계층에 대한 의료혜택에 역점을 두고 철원, 백령 등 의료시설이 낙후된 곳에 병원을 세우거나 「새 생명

찾아주기 운동」의 일환으로 무료진료 및 수술을 통해 어릴 적 꿈을 이어가고 있다.

전쟁통에 꿈을 잃어버린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면 한없이 미안한 마음이 든다는李회장은 『널리 사랑의 인술을 펼치는 박애의 마음, 사회공익에 작은 힘이 되고자 하는 봉사의 마음, 국민복지향상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애국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 하늘이 주신 선물에 보답하는 길이라 생각하고 동창회도 그러한 입장에서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진국게 아직 미혼인 연유를



문자李회장은 『유학 후, 바쁘게 지내다보니 마흔살이 됐는데 당시에는 그 나이로 시집가는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며 시원스레 웃는다. 『남편과 자식들을 보살피며 일했어도 역시 잘했을 것 같다』는李회장은 『자식대신 후배양성을 위해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고, 86세의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李회장은 茶道와 난 기르기가 취미이며, 핸디18의 골프실력을 갖고 있다.

(志)

동정

수상

▲裴炳育(47년 醫大卒·前대한 불임시관리협회장)=지난 3월24일 보건복지부와 보건사회연구원 주관으로 열린 생활보건평가대회에서 40여년간 사회보건산업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국민훈장 모란장」을 서훈받았다.

▲沈貞璧(48년 工大卒·모교 명예교수·本會理事)=5월30일 일본 요코하마에서 열린 일본고분자학회 연례총회에서 연구업적과 국제교류의 공적을 인정받아 제1회 국제상을 수상했다.

▲金英眞(57년 文理大卒·충남대교수)=4월29일 고려대 인촌기념관에서 한국근대연구회 관정장학회가 제정한 제8회 「관정동물학상」을 수상했다.

▲金振模(61년 法大卒·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이사장)=4월28일 대전 대덕연구단지내 한국자원연구소에서 95년도 「한국자원공학회 공로상」을 받았다.

▲金柱演(68년 大學院卒·숙명여대교수)=비평집 「사랑과 권력」(문학과 지성사刊)으로 「제6회 八峰비평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高永律(77년 醫大卒·모교교수)=최근 동신제약이 선정하는 「스미스클라인비참학술상」을 수상했다.

▲趙仁九(81년 社會大卒·시카고대교수)=매일경제신문사에서 수여하는 「제25회 이코노미스트상」을 수상했다.

이동·선임

▲姜萬植(55년 文理大卒·모교교수·本會理事)=지난 4월21일 고려대 인촌기념관에서 열린 한국생물과학협회 이사회에서 차기협회장에 선출됐다.

▲柳光烈(56년 師大卒·한국자유시協 명예회장·本會理事)=최근 출간한 동인지 「청과문학」 18집의 출판기념회겸 정기총회를 개최, 회장으로 재

선했으며 이번 학기부터 성문대학교 대학원에 초빙교수로 출강하게 됐다.

▲金海宣(57년 文理大卒·외교안보연구원 연구위원)=5월17일駐스위스대사로 임명, 발령됐다.

▲李會昌(57년 法大卒·변호사·本會理事)=5월1일 종로구 수송동 利馬빌딩 8층으로 변호사사무소를 이전했다. T: 737-3388.

▲金允在(57년 商大卒·태창대표이사·本會理事)=5월11일 태창부회장으로 승진, 발령됐다.

▲韓守垠(59년 工大卒·경화엔지니어링회장·本會理事)=4월21일 대한토목학회 회장으로 취임했다.

▲白忠鉉(61년 法大卒·모교법대학장·本會理事)=유엔인권위원회 산하 「아프카니스탄 인권문제 특별보고관」에 임명됐다.

▲尹東潤(61년 法大卒·前체신부장관·本會理事)=최근 한국정보문화센터 이사회에서 신임이사장으로 선출됐다.

▲柳敏榮(61년 師大卒·단국대교수·本會理事)=5월1일 공식 중인 예술의 전당 이사장에 임명됐다.

▲林東昇(62년 商大卒·경제연구소장·本會理事)=삼성증권대표이사 사장에 선임됐다.

▲徐榮澤(62년 商大卒·前건설부장관)=4월20일 열린 한국국제조세협회 총회에서 신임이사장에 선출됐다.

▲崔秉弼(62년 工大卒·(주)경방상임고문)은 「한국섬유기술컨설팅」이란 기술사 사무소를 강남구 역삼동 두꺼비빌딩 801호에 개설했다. T: 564-9354.

▲姜敏求(62년 行大院卒·유성개발회장·行大院同窓會長)=최근 고대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교수회에서 동창회장에 선임됐다.

▲朴相瓚(63년 法大卒·남북회담사무국자문위원·本會理事)=5월2일 통일원기획관리실장에 전보·발령됐다.

▲宋敏(63년 文理大卒·국립국어연구원장)=5월11일 정부·언론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 외래어심의위원장에 선출됐다.

▲金世鍾(64년 工大卒·과학기술처 원자력실장)=5월3일 방

사성폐기물관리사업 기획단장에 임명됐다.

▲姜漢弼(64년 師大卒·불교방송전무·本會理事)=5월11일 불교방송사장직무대리로 임명됐다.

▲金 旻(64년 音大卒·모교교수·本會理事)=8월26일부터 9월10일까지 일본 센다이에서 열리는 제2회 차이코프스키 국제 콩쿠르 청소년부 심사위원으로 위촉됐다.

▲鄭泰翼(65년 法大卒·駐카이로총영사)=駐이집트대사로 임명됐다.

▲黃吉秀(65년 法大卒·前법제처장·本會理事)=4월28일 서울 서초동 부국빌딩에 변호사 사무실을 개설했다.

T. 598-8100.

▲申憲明(66년 商大卒·한국銀行대리지점장·本會理事)=3월17일 프랑스 파리사무소장으로 전임.

▲李華珩(68년 農大卒·충남대교수)=최근 충남대 농과대 소강당에서 열린 한국가구학회 정기총회에서 신입회장에 재선 임됐다.

▲申英秀(69년 醫大卒·모교교수·本會理事)=최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보건기구 제48차 연차총회에서 임기 3년의 집행이사에 선출됐다.

▲黃斗英(69년 行大院卒·행대원동창회 상근부회장·本會理事)=5월11일 모교동창회관에서 열린 한국새마을금고

학회 제7차 정기총회에서 제3대 회장으로 연임됐다.

▲金鍾煥(69년 法大卒·前관세청차장)=5월16일 대한투자신탁사장에 선임됐다.

▲李景台(70년 商大卒·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최근 산업연구원 부원장에 임명됐다.

▲趙誠振(71년 文理大卒·오페라연출가)=예술의 전당 초대 예술감독겸 공연사업본부장에 선임됐다.

▲李鍾太(71년 醫大卒·연세대교수·本會理事)=5월12일 대한 초음파학회 평의원의회에서 신임 이사장에 선임됐다.

▲李源姬(72년 藥大卒·변리사)=최근 강남구 역삼동 신원빌딩 9층에 특허, 실용, 의장상표, 저작권 등에 관한

심판 및 소송업무를 취급하는 국제특허법률사무소를 열었다. T. 3453-0507.

▲李相烈(75년 文理大卒·목포YMCA이사장·本會理事)=지난 3월 목포신문사 대표이사로 연임됐다.

행사·출간

▲玄景愛(40년 師大卒·동양화가)=5월24일부터 30일까지 공평아트센터에서 동양화전을 개최했다.

▲徐柱成(47년 商大卒·연제장학회이사장·本會理事)=95년 연제장학생으로 모교 학생 7명을 선정, 7백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李賢宰(53년 商大卒·前한국



정신문화연구원장·本會理事)=5월12일 경기도 성남소재 정신문화연구원 대강당

세미나실에서 「광복이후 한국 사회의 문화변동과 그 전망」을 주제로 광복 50주년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宋庸植(55년 法大卒·한국지역정책연구원 이사장·本會理事)=5월18일 하얏트호텔에서 「세계화를 위한 정보통신 정책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張潤錫(55년 醫大卒·모교교수·本會理事)=5월12일 서울 어린이대공원에서 전국지체부자유아를 위한 「특수어

린이 대잔치」를 개최했다. ▲申榮均(55년 齒大卒·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장·本會副會長)=5월11, 12일 양일간 예총전국대표자회의를 개최했다.

▲韓斗鎭(56년 醫大卒·한국병원장·本會理事)=5월12일 여의도 63빌딩에서 중외박애상 및 언론인상 시상식과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琴震鎬(58년 法大卒·국회의원·法大同窓會長)=5월6일부터 美워싱턴에서 열린 제7차 韓·美 와이즈맨회의에 참



석했다.

▲俞東濤(60년 農大卒·한국단미사료협회상근부회장·本會理事)=5월26일 제주대농대에서 농과 대학생 및 농업 최고경영자과정생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사료사정과 과제」라는 주제로 특강을 했다.

▲宋漢虎(60년 文理大卒·민족통일협회의회장·本會理事)=5월11일부터 14일까지 세종문화회관 제3전시실에서 국내 원로화가, 북한공훈예술가, 연변조선족화가들의 작품을 전시하는 「통일그림전」을 가졌다.



「삼성 명예의 전당」 헌액 대상자

姜晉求동문



姜晉求(57년 工大卒·本會副會長)삼성전자회장이 최근 「삼성 명예의 전당」 첫

헌액 대상자로 선정됐다.

「명예의 전당」은 미국에서 정치 스포츠 등 특정분야에 뛰어난 공적을 세운 사람들을 기리기 위해 설립한 것으로 삼성그룹은 20년이상 장기근속퇴직자를 대상으로 그룹발전에

큰 공을 세운 인물을 선정, 윤영기로 했다.

姜동문은 현직임에도 불구하고 그룹주력산업인 전자분야를 사업초창기부터 오늘이 있기까지 이끌어 온 공을 인정받아 그 첫번째 대상자가 됐다.

「삼성 명예의 전당」은 「무형의 명예」이외에도 퇴직후 현직에 준하는 급여를 종신지급하고 본인이 사망할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종신연금이 상속된다.

명예경제학 박사학위 받아

張翼龍동문



張翼龍(58년 工大卒·本會副會長)서광회장(사진右)은 지난 4월25일 중앙대 金玟河총장(사진左)으로부터 「섬유산업발전과 문화체육진흥에 기여한 공로」로 명예경제학 박사학위

를 받았다.

기계공학과를 졸업한 張동문은 현재 한국마라톤후원회이사장과 섬유산업연합회부회장을 맡고 있다.

▲黃明燦(60년 法大卒·한국환경정책학회·本會理事)= 5월 23, 24일 양일간 「국제화 시대의 환경정책의 과제와 진로에 관한 韓·獨 국제세미나」를 리베라 호텔에서 개최했다.

▲李相完(61년 醫大卒·대한교통학회·本會理事)= 5월 20일 힐튼호텔에서 95년도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자동차 승차자 부상의 증가와 안전벨트 착용법의 개정 필요성」에 관한 발표를 했다.

▲洪淳鎬(61년 文理大卒·이화여대교수·本會理事)= 韓日기본 조약 체결 30주년을 맞이하여 5월 26일 한국정치의 교시학회가 주최하는 학술회의에서 「韓日외교의 국제관계사적 고찰—근·현대 조약체결비교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했다.

▲蔡載億(61년 法大卒·중소기



업진흥공단이사장·本會理事)= 5월 11일 부산 국제문화센터에서 「전동기 자동제어 기술」 세미나를 개최했다.

▲玄昭煥(61년 文理大卒·연합통신사장·本會理事)= 5월 12일 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亞·太통신사기구(OANA) 제16차 이사회, 제11차 기술전문가회의 및 편집인회의를 가졌다.

▲朴香淑(62년 美大卒·서울여대교수)= 4월 28일부터 30일까지 미국 시카고 그렌뷰 공립도서관에서 연세작품전을 개최, 30일 오후에는 그렌뷰도서관 메이나다룸에서 작품 설명회도 가졌다.

▲金玉照(63년 法大卒·한국언론연구원장·本會理事)= 최근 전국 신문·방송·통신사 간부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자치와 선거제도」란 주제로 선거제도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제도방향을 모색하는 세

미나를 개최했다.
▲賈在桓(63년 法大卒·사법연수원장)=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쓴 한국사법의 운영과제, 법관양성제도의 개혁, 법원의 운영과 관리등에 관한 논문을 모아 「사법운영의 이론과 실제」(博英社刊)를 출간했다.

▲文光順(64년 工大卒·한국계면공학연구소장·本會理事)= 최근 북경을 방문해 中國煤炭科學研究總院 北京煤化學研究所와 과학기술교류협약을 맺었다. 한편 6월 21일 한국에너지 기술연구소와 공동으로 통상산업부 청정연료 연구과제의 일환인 石炭의 源泉脫黃에 관한 국제 워크숍을 가질 예정이다.

▲陳眞淑(66년 美大卒·한양대교수·本會理事)= 5월 10일부터 16일까지 덕원미술관에서 동양화전 개최.

▲金權培(66년 商大卒·마스타카드 코리아사장)= 5월 12일부터 14일까지 경주조선폰에서 「칩카드 현주소와 발전방향」을 주제로 세미나 개최.

▲鄭在植(66년 商大卒·두산기계사장)=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국제공작기계전시회와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공작기계협의회에 참석했다.

▲林岡源(67년 工大卒·모교환경대학원장)= 5월 3일 모교교수회관 본회의실에서 「경부고속철도 수도권역사의 합리적 개발방향」을 주제로 세미나 개최.

▲李奎億(68년 商大卒·산업연구원장)= 5월 11일 서울 흥릉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지방자치시대의 지방중소기업 육성전략」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

다.
▲金泰天(70년 新大院卒·한국증권협회상무이사·本會理事)= 5월 5일부터 13일까지 스위스 주리히에서 열린 「국제증권협회 협의회(ICSA)」 제8차 연차총회에 참석했다.

▲梁建(70년 法大卒·한양대교수)= 5월 11일 서울지방변호사회관 별관 대회의실에서 「한국형 지방자치의 청사진」출판 기념회를 개최했다.

▲白尙昌(74년 大學院卒·한국사회병리연구소장)= 5월 9일 한국사회기초연구회와 공동으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지방화시대에 있어 사회기초확립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가졌다.

▲李善媛(79년 美大卒·수원대교수)= 5월 9일부터 17일까지 갤러리 이콘에서 개인전을 개최했다.

기 타

▲李東薰(41년 醫大卒·前부산대교수·本會理事)= 일본에서 4월 29일 가족 방문차 일시귀국, 5월 7일 출국했다.

▲羅碩昊(57년 法大卒·변호사·本會理事)= 5월 13일 미국 알칸소주에 있는 웨체스터대학에서 명예법학박사학위를 수여받았다.

▲金東成(70년 經大院卒·환경상사대표이사)= 4월 1일자로

경부고속도로 안성주유소를 인수하여 성업중이다.

▲尹基貞(72년 師大卒·동의공업전문대교수)= 작년 2월에 동아대학교에서 「GaAs/AlGaAs 복수양자우물구조를 가로지르는 전자의 횡단전송에 관한 연구」로 공학박사학위를 받았다.

결 혼

* 고승진군(88년 工大卒)·오세자양(90년 師大卒)= 6월 10일 오후 2시.

* 박동주군(89년 師大卒)·최계남양(90년 師大卒)= 6월 11일 12시 30분.

* 이동호군(90년 農大卒)·윤영이양= 6월 17일 12시 30분.

* 주영길군(95년 大學院卒)·박송이양= 6월 17일 오후 2시.

* 한대만군(92년 農大卒)·강혜진양= 6월 17일 오후 3시 30분.

* 양환주군(92년 大學院卒)·남희순양= 6월 18일 11시.

* 김성군(91년 農大卒)·조현주양(90년 師大卒)= 6월 18일 12시 30분.

* 윤주병군(92년 自然大卒)·김정선양= 6월 18일 오후 2시.

* 황규철군(93년 美大卒)·이난주양= 6월 18일 오후 3시 30분.

* 윤학중군(90년 農大卒)·배진아양= 6월 24일 12시 30분.

* 박영권군·김옥화양(92년 師大卒)= 6월 24일 오후 2시.

* 오광욱군(87년 自然大卒)·박선아양= 6월 24일 오후 3시 30분.

* 이성동군(92년 社會大卒)·최윤정양= 6월 25일 오후 2시.

* 윤수영군(84년 社會大卒)·홍숙한양(90년 師大卒)= 7월 2일 12시.

(정리= 金愛泳기자)

崔昌洙동문 뇌출혈로 별세

미네소타대학 선임연구원으로 재직중이던 崔昌洙(74년 獸醫大卒)동문이 지난 5월 16일 미주에서 개최된 학술대회 참석중 뇌출혈로 별세했다.

유족으로는 미망인 金錦華(80년 大學院卒·미네소타대학 농대 선임연구원)이 있다.

崔동문은 농어촌진흥청 수의과학연구소의 연구관으로 재직했으며, 미네소타대학에서 수의미생물학 박사학위를 받은

후 同大에서 선임연구원으로 재직, 우수연구과제 포상과 「Outstanding Scientist」상을 받은 바 있다.

李賢宰회장 타계

李賢宰(최고경영자과정 3회) 국립공원협회장이 5월 2일 서울 적십자병원에서 숙환으로 별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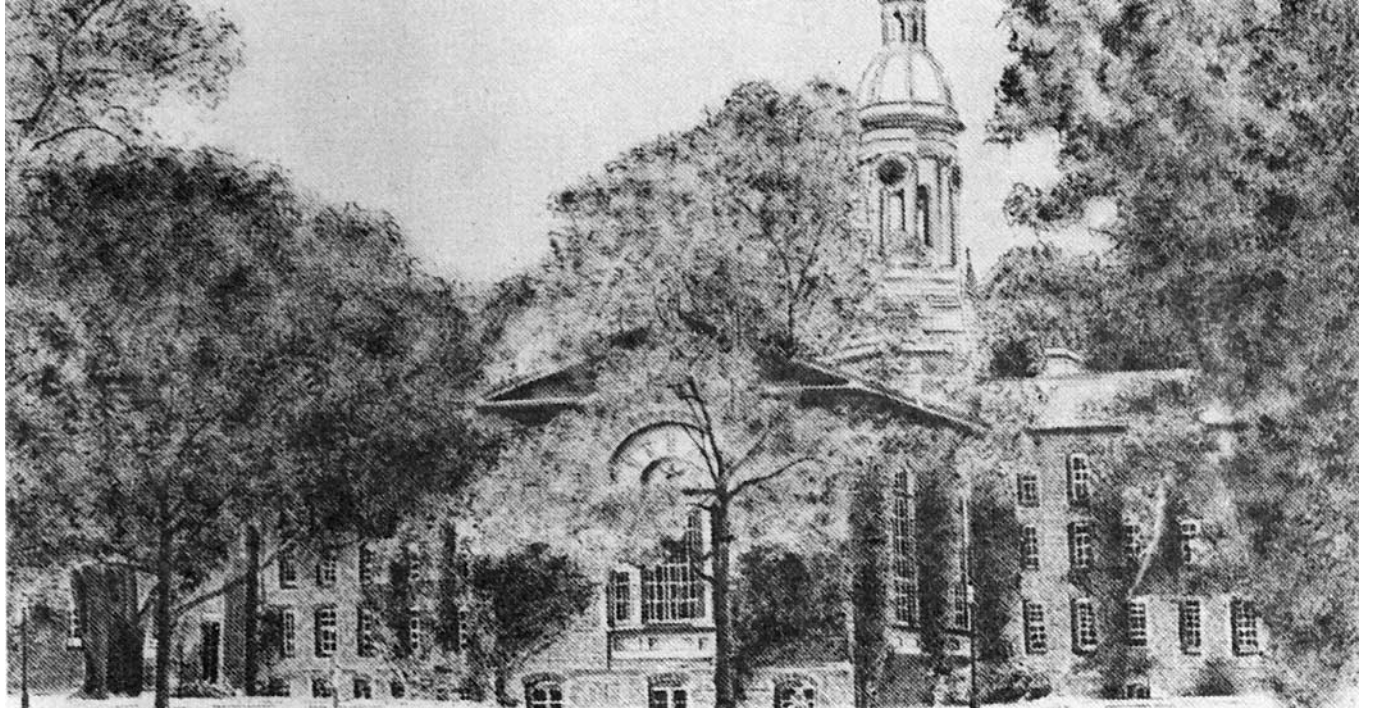


엄격한 도시계획, 전원캠퍼스 유지

순수이론연구 학풍으로 자리잡아

프린스턴대학은 지리적으로 뉴욕과 필라델피아의 중간지점인 중부 뉴저지에 위치하고 있다. 영국의 식민시대인 1746년에 설립된 프린스턴대학은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하바드, 예일과 함께 미국 동부 명문사립대학의 모임인 아이비리그(IVY LEAGUE)학교 중의 하나이다.

프린스턴 캠퍼스는 대도시에 위치하지 않은 전형적인 전원캠퍼스로 학교 내에 호수와 정원, 분수, 골프코스 등이 기숙사, 연구실 등과 혼재하는 아름다운 공원캠퍼스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캠퍼스 곳곳에 피카소 등 저명한 미술가들의 조각품을 배치하고, 학교 건물은 대부분이 고딕풍의 석조건물로 간간히 현대식 첨단건물들을 배치하여 학교 분위기의 품격을 높이고 있다. 학교의 본부건물로 쓰이고 있는 낫소홀은 조지 워싱턴이 독립전쟁 당시 한 때 정부청사로 사용하던 건물로 미국의 주요 사적으로 지정되어 있다.



미국독립전쟁시 워싱턴장군은 프린스턴캠퍼스에서 독립전쟁을 지휘했고, 대학본부건물인 「낫소홀」은 한동안 국회의 사당으로 사용되기도 했다. 이 건물은 미국의 10대 역사건축물로 지정돼 있다.

호랑이가 심볼

학교의 상징동물은 호랑이로, 학교의 상징색은 바로 호랑이의 주황색과 검은색 줄무늬이다. 학교를 둘러싸고 있는 프린스턴 마을은 1백년전 사진과 비교해보면 마을의 모습이 거의 변화하지 않은 채 엄격한 도시계획으로 도시화를 억제하고 있다.

프린스턴은 다른 아이비리그의 학교에 비하여 학생수가 적은 편에 속한다. 이것은 20세기 초에 우드로 윌슨(후에 미국 대통령)이 총장으로 있을 때 순수과학 중심으로 학풍을 개혁하면서 응용분야인 의학, 법학, 경영학 분야를 설치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수학, 화학, 물리학 등 순수 기초과학 분야에서 프린스턴대학은 단연 세계 최고수준의 우월성을 가지

게 되었고, 그 전통은 학교내의 다른 분야에도 영향을 미쳐 경제학이나 공학, 인문과학 등에서조차 응용연구보다는 순수이론적 연구가 프린스턴의 특징적인 학풍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따라서 프린스턴 출신의 한국 유학생도 그 숫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으로서 가장 유명한 미국유학생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승만대통령이 프린스턴 출신인 것은 재미있는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다. 프린스턴 출신의 한국인은 그러한 학풍의 영향인지 거의 대부분 국내외에서 대학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한국에서 해외유학이 본격적으로 진행된 80년대 이전까지는

프린스턴대학에 재학중인 한국인은 평균적으로 10명을 넘지 못하였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것은 물론 학교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탓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프린스턴대학의 학생 선발기준이 매우 엄격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무렵 프린스턴을 거쳐간 한국유학생들은 거의 대부분이 서울대학교출신이라고 할 수 있다.

유학생 거의 서울대 출신

물론 80년대 이후에도 서울대학교 출신들이 프린스턴 유학생의 절대다수를 차지했지만, 타고 출신들이 프린스턴에 유학하기 시작한 것은 80년대 이후라고 할 수 있다.

현재 프린스턴에서 석사학위 이상의 과정을 마치고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서울대동문들은 약 50여명 정도일 것으로 추산된다. 이 분들을 모두 열거하는 것은 지면관계상 불가능하지만, 프린스턴 출신으로 모교에서 활동하고 있는 동문들은 姜玄三교수(미생물학), 金永植교수(화학), 鄭雲燦교수(경제학), 李俊求교수(경제학), 朴鍾相교수(화학), 朴昌範교수(천문학), 蔡東虎교수(수학)등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외에도 金永杰교수(포항공대), 金秉柱교수(서강대), 林吉鎮교수(미시간주립대)등이 프린스턴 출신 서울대동문들이다.

(金鍾爽(78년 社會大卒)홍익대교수)

주제 **인연**

“서울대 법대라도 나왔으니…”

金濤浩 (56년 法大卒) 코리아나투어여행사 사장

동기동창들이 모였을때 『서울대 법대라도 나왔으니 제 주제에 은행간부나 중앙부처의 간부를 했지… 법대나온 작자들 안되겠어』라고 하며 모임에 잘 보이지 않는 친구들을 핀잔하는 소리를 재치있게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아마 필자도 법대라도 나왔으니 그 인연으로 駐獨公報官이라도 지내고 또 그 인연으로 「구텐베르그銅像 공로상」이라도 받은 것이라고 본다.

독일사람들은 구텐베르그가 세계 최초로 금속활자를 발명해 인류문화에 기여했다고 그 자부심이 대단하다. 미국의 에디슨, 영국의 왓트와 같다. 그런데 극동방면 노란사람들이 그들 백인의 1450년보다 216년이나 앞선 1234년 고려 고종때 「최 이」가 금속활자인쇄를 했더니 증거가 없어 못믿겠다고 할 판이었다.

바로 그 구텐베르그박물관에서 한국 금속활자 인쇄전을 74년 본국의 도움으로 개최했다. 독재와 불법잡치 잘하는 한국이미지를 씻어 버리는 문화적 자긍심의 高揚이었다. 신문, TV방송이 떠들게 되었다. 가야금과 거문고 그리고 독일음악을 한국인이

연주해 동서문화 소화능력도 보여주는 엄숙한 개회식이었다. 그 후 나는 태국으로 발령받아 동남아에 「새마을운동」을 移植하느라고 정신이 없어 까맣게 다 잊고 있었다.

10년 후, 어느날 우연히 서울 힐튼호텔에서 그곳에서온 젊은 직원을 만났다. 옛 이야기가 인연이 되어 독일자존심이 나에게 동상을 표창기로 결정했다는 통보를 10년이 지난후에 받았다. 12년째 되어 독일 마인쯔에 가서 특별상을 받아 감개무량하였고, 독일사람들의 문화적 감각과 숭양심을 다시 한번 보게되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높은 문화적 자긍심을 잊은 것 같다. 현존 最古 금속활자인쇄물인 「직지심경」은 불쏘시개로 다 없어지고 하나가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남아있다.

30분 거리의 괴테하우스에 가는 것은 필수관광코스다. 알면서 구텐베르그 박물관시찰은 관심이 적다. 남의 나라에서 우리를 높게 알아주는데 그 이상 더 좋은 홍보는 없지 않은가! 우리 것이 더 소중한다는 것을 알기 바란다.



루마니아에서 만난 사람들

李承義(64년 美大卒) EC CLUB세계여행 회장



여행업에 종사하다 보니 해외여행을 자주 하게 된다. 여러차례 여행을 통해서 길들여진 나만의 여행의 「맛」이라면 바로 사람들과의 만남이라는 것이었다.

그 여러나라 중에서도 내가 가장 좋아하는 나라는 루마니아다. 루마니아는 우리의 60, 70년대를 연상시켜줄만큼 아주 가난한 나라이다. 동구권에서도 물가가 가장 싼 나라, 고급호텔이라고 해야 겨우 1천 레이(Lei), 우리나라 돈으로 3천원정도면 묵을 수 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더욱 여행자들을 흥미롭게 만드는 것은 친절한 루마니아인들이다. 그들은 아주 낙천적이고 사람사귀기를 좋아한다. 전화 사용횟수가 세계에서 제일이라 하니 교제를 좋아하는 그들의 일면을 짐작해볼 수 있다. 시내의 거리나 식당등은 언제나 사람들로 가득차서 왁자지껄하다. 호텔, 레스토랑에는 예외없이 밴드가 마련되어 있어 루마니아의 전통음악을 연주하고 사람들이 어디서든지 그 리듬에 맞추어 춤을 춘다. 그런 특유의 라틴기질 때문인지 그들은 낯선 여행자들을 항상 따뜻하게 맞이해 준다. 동구권이 다 그렇지만 그중에서도 루마니아의 경제는 최악이다. 내가 머물렀던 91년 당시만해도 부카레스트의 가게에는 설탕이 없었다. 국가의 외환

보유고가 바닥이 나 수입을 못해서 물물교환방식으로 수입을 해오는데, 수입국인 쿠바에서 설탕이 도착하는 3개월동안은 부카레스트에 설탕이 없다는 것이다. 루마니아의 생필품은 절대 부족하다. 루마니아 어디서든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가게 앞마다 늘어선 긴 줄이다. 그들은 오직 바게트 하나를 사기 위해 긴 줄을 선다. 줄을 서는 것은 그들에게는 이미 일상화된 생활의 한 모습이다.

루마니아의 경제를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돈 많은 일본인들과 아랍계 집시들이다. 부카레스트에서 최고급인 인터콘티넨탈 호텔은 일본인 소유이며, 루마니아에서 집시들의 힘은 실로 막강하다. 부카레스트에만도 약 5만명의 집시들이 살고 있다. 그들은 개방전부터 이미 막강한 자본력으로 호텔과 레스토랑을 사들이며 루마니아 시장을 장악했다. 나는 부카레스트에 머물면서 디스코텍에 갈 기회가 있었는데, 집시들은 그 디스코텍을 몽땅 빌려 자기들끼리 춤을 추고 있었다. 여기에 루마니아 사람들은 감히 끼어들지 못했다. 나와 함께 동행했던 고령의 한 여자체육계 인사가 술기운에 그들 틈에 끼어 들러다 사정없이 내쫓기는 것을 보았다. 집시들은 루마니아돈 레이를 공중으로 뿌려댄다. 돈이 없는 가난한 루마니아인들, 그들은 돈많은 집시들의 노예와도 같은 존재들이었다.

그런 루마니아의 현실을 눈앞에서 지켜 본 나의 감회도 착잡한 심정을 가눌 길이 없었다. 우리에게도 그런 불행했던 과거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 속에서도 나를 바라보는 그들의 천진난만한 눈망울은 나로 하여금 강한 연민의 정을 갖게 했다. 그런 때문일까. 기차를 타고 루마니아 국경을 벗어나려는 순간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 내리는 걸 어쩔수 없었다.

인연은 또 다른 인연을 낳고…

玄永旭(71년 文理大卒) 스카이어행사 사장



일을 하면서 매우 보람있었던 인연을 한번 소개하려 한다.

94년 2월경, 20년 이상 친하게 지내온 친구가 어느날 사무실로 찾아왔다.

매우 심각한 모습으로 하는 이야기가 딸이(당시 中3 졸업) 고등학교 연합고사에 떨어져서 일반 고등학교에 들어 갈 수가 없게 되었는데 마침 미국에 형님이 계시니까 그곳으로 유학이나 보낼까 한다는 것이었다.

친구에게 미국 고등학교 유학에 필요한 서류를 정리해 주고 미국 고등학교의 정식 입학허가서를 검토한 후, 의논해 보자고 하고는 헤어졌다.

일주일 후, 모든 서류를 검토해 보니, 매우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학과 성적이 거의 하위권이었다.

친구 이야기로는 딸아이가 머리는 좋은 것같은데 도통 공부를 하려 들지 않아 무척 걱정이라며, 그래서 미국 유학을 생각하게 됐고 본인과도 이야기가 됐다고 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미국 대사관의 유학비자는 무척 까다로웠으나 사실 그대로 모든 서류를 번역하고 공증

을 했다. 무엇보다 인터뷰를 할 때 있는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할 것과 이곳에서는 성적이 나쁘으나 미국에 가서 한 국에서보다 더욱 발전된 새로운 분야를 체계적으로 열심히 공부할 것임을 강조하라고 일러두었다.

드디어 인터뷰에 통과돼 정식

미국 고등학교 유학비자가 나왔고 친구의 딸은 미국으로 떠났다.

그 친구에게 축하를 해주고 비행기 예약 티켓을 건네주고는 잊어버렸다.

그 후, 6개월 정도 지난후 그 친구가 독일로 출장을 갔다가 뉴욕에 들려 딸을 만나보고 귀국하여 우리 회사로 즐거운 모습으로 나타났다. 딸의 안부를 물어보았더니 그곳에서 학교 성적이 1~2등을 다투고 있어서 하도 신기해서 딸에게 물어 보았더니 『한국에서는 자기가 공부하는 것이 부모를 위해 하는 줄 알았는데, 미국에 와서 보니 공부는 자기를 위하여 하는 것인 줄 이제야 깨달았다』고 하면서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겠다는 딸의 모습을 보고 감동했다는 것이었다.

자그마한 일이지만, 한국에선 공부를 안하던 그 학생이 그곳에선 스스로 모범생이 되어 열심히 공부한다는 가슴 뭉클한 작은 보람을 느꼈다.

그 친구와의 인연이 그 딸아이의 장래에 좋은 인연으로 발전된 경우라 하겠다.

모교소식



대동제 마지막날 음대 앞마당에서 열린 「음대야외음악회」

관악 5월 대동제 성황리에 폐막 전통혼례, 풍물놀이 인기 끌어

95년 1학기 대동제가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해방선언-끝나지 않은 부활의 노래」라는 구호아래 관악캠퍼스 곳곳에서 펼쳐졌다.

이번 대동제에는 「세상밖으로」 영화상영을 시작으로 4부로 나뉜 개막제, 해방가요제 등이 열렸다. 특히 시화전, 그림전, 광주민주화항쟁에 관한 사진전 그리고 여성문제를 다룬 미술작품전등 「기획거리전」을 열어 신선미를 가미했으며 우체국 앞의 「저자거리」에

서는 전통혼례식, 단대풍물패 연합의 공연이 펼쳐져 보는 이의 흥을 돋우었다.

한편 마지막 날에는 차량통제를 통해 순환도로변 자전거 일주가 있었고 본부 앞 잔디구장에서는 물러스케이팅 타기, 굴렁쇠 굴리기, 연날리기등의 행사가 있었다.

이번 대동제는 과거에 비해 총학생회의 행사준비 형식을 탈피, 단과대마당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된 모습이 특별히 부각됐다.

金鍾云 前총장등 19명 명예교수로 새로 추대

모교는 지난 6일자로 金鍾云 前총장을 비롯해 19명의 교수를 명예교수로 추대했다.

지난 4월18일 열린 명예교수 선정위원회(위원장 鮮于仲皓 부총장)를 거쳐 이번에 새로 추대된 명예교수는 다음과 같다.

金鍾云교수(영문학), 李 桓

교수(불문학), 金俊鎬교수(생물학), 李禹永교수(유기화학), 玄炳九교수(자원공학), 尹定燮교수(토목공학), 黃迪仁교수(사법학), 丘仁煥교수(국어교육), 李孟成교수(영어교육), 權宗國교수(수리학), 林昌亨교수(수리학), 金信根교수(제약학), 李南洙교수(작곡), 康芸京교수

(기악), 李基媛교수(기악), 金周完교수(의학), 金洙泰교수(의학), 金昇元교수(의학), 金祐謙교수(의학)

특례입학 자격강화 98학년도 입시부터

98학년도 입시부터 「외국학교에서 5년이상 수학한 자로 고교과정 1년이상을 포함, 2년 연속 또는 통산 3년이상 중·고교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만 정원의입학 지원자격이 부여된다.

모교의 이같은 조치는 특례입학제가 실시된 77학년도 이후, 이 제도의 맹점을 악용, 실제로 대부분의 교육과정을 국내에서 이수한 자가 혜택을 받거나 위장이민등 탈법적인 방법을 통해 지원자격을 획득하는 등 문제점이 많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신임 치대학장에 金光男교수 취임



지난 15일자로 李種昕치과대학장 후임으로 金光男교수가 제21대 학장에 취임했다.

신임 김학장은 65년 치대를 졸업, 치의학석사, 의학박사 학위를 받은 후, 치과대학 학생담당학장보, 교무담당학장보를 거쳐 치과병원 보철과 과장을 역임했다. 김학장은 현재 대한치과보철학회 회장, 아세아두개하악장애학회 회장을 맡고 있다.

(變)

모교 「연구공원」 기금 LG그룹 3백억 출연

LG그룹(회장 具本茂)은 모교가 추진하고 있는 「연구공원(Research Park)」조성을 위해 3백억원을 출연키로 결정, 6월 초 약정식을 갖기로 했다.

LG그룹은 관악캠퍼스에 조성될 연구공원단지내 3천평 부지에 화학·전자관련 기초연구棟을 건립키로 했다.

모교가 추진중인 연구공원 조성계획에 따르면 오는 97년 말까지 대지 2만5천여평 규모로 반도체·정보통신·신소재·유전공학등 최첨단 연구棟 6개를 건립, 기부금을 낸 업체에 20년간 무상 대여해주고 대학의 연구인력을 지원한다는 것으

로 돼있다.

數理研究棟 건립 洪性大등문 기증

「수학의 정석」저자로 유명한 洪性大(63년 文理大卒·상산학원 이사장)등문이 기증한 기금으로 모교에 수리과학연구棟이 세워진다.

洪동문이 지난해 1월19일 수학연구발전에 사용해 달라며 출연한 20억원을 기금으로 최근 수리과학연구棟 기공식을 갖고 내년 8월까지 1천72평 규모의 지하 1층, 지상 5층의 최신식 건물을 완공키로 했다.

동문선배의 이색강연

생생한 경험담 통해 현장감각 익혀

최근 사회학과 수업시간에 교수가 아닌 동문선배의 이색적인 강의가 펼쳐져 학생들의 눈길을 끌었다. 1학년 전공학생을 대상으로 펼쳐진 「사회학원론」시간에 모교 사회학과 출신들로서 政·官·財·言論界의 중요 직책을 맡고 있는 동문들이 경험담을 들려주고 토론하는 강의가 있었다.

올해 처음으로 시도된 이번 강의는 선후배의 만남을 통해 우의를 돈독히하고 현장 교육 감각을 고취시켜 재학생들의 사회진출에 도움을 주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사회학과 金瓊東교수는 「기존의 이론중심교육을 지양하고 선배들의 경험을 들려줌으로써 전공하는 학생들로 하여금 사회진출에 대한

새로운 각오를 갖도록 시범적으로 실시한 수업방식」이라고 말했다.

이번 강의에는 鄭洪鎮(57년 文理大卒)송원장학재단 이사장, 朴紀正(68년 文理大卒·本報 논설위원)동아일보 편집부국장, 金憲出(69년 文理大卒)삼성생명보험 대표이사, 李海瓚(72년 文理大入)국회의원이 강사로 초빙됐으며 부전공학생을 포함한 40여명의 학생들은 다양한 질문을 하는등 매우 좋은 반응을 보였다.

金瓊東교수는 「앞으로 운영을 더욱 체계화하고 많은 동문들의 참여를 유도할 것이며 다른 학과에서도 동문선배들이 협조해 재학생들이 사회진출전 실질적 교육을 받도록 도와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동문엽서
한방

꽃 나 래

尹錫壬동문의 체인 꽃가게



마음씨 착한 공주가 살고 있는 예쁜 통나무집. 공주는 곱게 기른 정원의 꽃들을 한아름 따서 방안을 가득 장식해 놓았지요. 「어서오세요. 꽃과 함께 생활의 작은 행복을 느껴보세요」

카사브랑카에서 느껴지는 고결한 품위를 좋아한다는 꽃나래대표尹錫壬(60년 家政大卒)동문. 장충동에 위치한 작은 연구실에서尹동문의 향기를 맡을 수 있었다.

『꽃은 시들기때문에 아름다운 것이 아닐까요』

시든 꽃에서 삶의 고귀함과 안타까움, 그 찬란함을 더욱 짙게 느낄 수 있다는尹동문은 단순히 꽃을 예쁘게 포장해서 파는 그런 꽃가게를 운영하는 것은 아니다.

『꽃잎이 하나를 하더라도 꽃의 곁은 선과 둥근 봉오리, 놓일 곳의 조화등 여러가지를 생각하며 해야 합니다』

꽃가게에서 단순한 꽃포장이 아닌 플라워디자인을 시도하기는 처음이었다는尹동문은 압구정동·서교동·삼풍백화점에서「꽃나래」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물론, 장충동 스튜디오에서 후진양성과 작품활동에도 힘쓰고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직도 꽃하면 장미꽃을 으뜸으로 생각하지요. 알차고 단단하게 생긴 그런 꽃이 예쁘고 심심한 꽃이라는 고정관념이 있어서 늘어지는 맛으로 장식하는 꽃들로 작품을 할 경우에는 시든 꽃으로 했다는 원망을 사기 쉽사리지요』

꽃은 어느 위치에 있건 간에 너무 튀지 않고 그 자리에 있는 듯 없는 듯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이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한다는尹동문은 항상 중간색을 사용, 아름다운 것으로 끝나지 않고 뭔가를 한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을 하려고 한다.

항상 꽃속에서 생활하면서도 지금도 예쁜 꽃을 보면 저절로 감탄사가 나온다는尹동문은 꽃과 함께 생활할 수 있어 행복하다고 한다.

꽃나래 연락처

압구정동 542-1427·삼풍백화점 593-8545·서교동 324-6554·장충동연구실 254-1557 (泳)

한방

棍棒, 검도수련으로 기력키워

金大慶(53년 獸醫大卒)수의과의원장



지금과 같이 공해와 소음이 혼탁한 도시생활에서는 건강하게 자기 수명을 누리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병석에서 신음하다 죽은 사람을 칭해「人命在天」이라고들 하는데, 나의 경우는「盡人事待天命」이 생리에 맞아, 죽는 순간까지 건강한 몸으로 자신이 하던 일에 최선을 다하고 나서 하늘의 뜻을 기다리는 것이 순리이며 진정한 생애라 믿는다.

이상과 같은 뜻을 이루기 위한 나의 평소 생활신조는 다음과 같다.

1. 나이를 의식하지 않고 조기조침(5시 기상, 10시 취침)함.
2. 편식없이 제 시간에 음식물을 오래 씹어서 먹음.
3. 정해진 시간에(아침 6시부터 8시까지) 체육관에 나가, 우리 고유의 무술인 곤도(곤방)와 검도수련으로 기력을 키움.
4. 천직(수의사)에 대하여 자긍심을 갖고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동물치료에 전념함.
5. 공휴일 아침은 가인과 함께 산에 올라 간단한 체조와 노래를 즐겨함.
6. 칠십을 넘기면서부터는 과음과식을 하지 않고 즐겨하던 담배도 끊음.
7. 매사를 긍정적으로 보고 즐겁게 생활함.

이상이 내 평소의 건강생활법인데, 한마디로 건강은 규칙적인 생활이 근본이라 하겠다.

나는 어릴적부터 생동하는 자연과 더불어 자랐고, 더운기 청소년기는 광활한 초원과 흑한의 눈나라인 북해도에서 검도, 승마 그리고 스키 등을 자연스럽게 익히면서 학문을 닦고, 오늘날까지 지속적으로 운동을 해왔기에, 비교적 나이에 비해 건강한 편이라 생각한다. 그런 뜻에서 모든 동문들, 특히 청년시절의 후학들은 자신의 기호나 체질에 맞는 한가지씩의 운동을 반드시 익혀 계속 생활화해야만 생애를 건

강하고 즐겁게 보낼 것이라 믿는다.

참고로 후학들을 위해 당부코자 하는 말은 자신의 젊음을 과신하여 지나친 음주나 껌연으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건강을 해치지 말 것이며, 학문에만 너무 치중하여 건강을 무시하면 전공 분야에서 성공했을 때, 건강이 따르지 못해 그때 가서야 후회하지 말고 건강제일주의로써 학문을 익혀야만 될 것이다.

이상으로 나의 건강에 대한 소박한 실천철학을 두서없이 피력해 보았다.



서울대학교 同窓會報

동창회 지표 ● 참여하는 동창회 ● 노력하는 동창회 ● 영광스런 동창회

- 21면 드락
- 22면 모임탐방
- 23면 문화단신
- 화제의 동문
- 24면 年會費납부자
- 27면 국민카드가입자

제 207호

1976. 4. 13 등록번호(서)라-137호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News

1995년 6월 1일 월 간

[21]



미술의 해, 有感

趙誠愛(68년 美大卒)판화작가



올해는 「미술의 해」라는 이름을 내건 한 「해」(Year)이다. 이런 특징이름의 「해」를 정해놓은 나라는 아마 우리나라밖에 없을 것이다. 한 해를 미술을 위한 해라니? 얼마나 큰 수확을 1년이라는 단기간안에 얻어낼 수 있을 것인가? 어쨌든 이왕 내세운 구호이니 한 해를 잘 활용해서 진정한 미술문화의 발전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미술은 재벌의 사치품(?)

지난 4월, 예술의 전당에서 열린 「판화미술제」가 우려와는 달리 「미술의 해」라는 이름에 걸맞게 대성황을 이루었다. 많은 低價의 판화들이 매진되었고 연일 관람객들로 북적거렸다. 5월에는 「한 집 한 그림 걸기」라는 미술축제가 각 화랑마다 일제히 열렸

다. 인기작가의 그림이 저렴한 가격에 나왔다하여 어떤 화랑은 추첨을 하기에 이르렀고 일부 화랑에 불과한 얘기지만 몇 화랑은 백만원 미만의 소품들이 많이 팔려 모처럼 재미를 보았다고 한다.

미술품하면 일부 재벌들의 소유로만 생각하고 멀리했던 중산층들이 이 두 행사에 많이 참여했듯이 저변에 많은 미술애호가들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미술계는 지난 몇 년동안 불황의 터널이 제일 깊어 매우 심각한 상태였는데 이번 행사를 통해(일부 화랑의 잔치로만 끝났다는 비판도 많았으나) 언제든지 좋은 기회와 노력에는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었다.

매년 뉴욕에서 열리는 「Art Expo」나

「Art International」같은 국제전에 참가했을때 400여부스(booth)의 큰 행사장의 많은 관람객들을 보며 우리나라에선 언제 이런 규모의 문화행사를 가질 수 있을까 요원하기만 했는데 이런 추세로 몇 년 발전돼 간다면 남의 얘기만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림보는 「눈」 키워줘야

이번 기회에 올바른 그림값이 형성되었으면 좋겠고, 화랑들이 지나친 상업성에만 치우치지 말고 실력있는 작가들을 키워낼 수 있는 풍토, 작가들이 좋은 그림만 그리고도 살아갈 수 있는 여건, 일반인들이 그림을 제대로 볼 줄 아는 「눈」을 가지는 것(이 「눈」은 부모들의 책임이다. 틈틈이 어릴때부터 문화와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면 그 「눈」은 저절로 커지는 것이다) 이 세 요소가 함께 향상되어 올바른 미술계가 정착되고 문화 5천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나라답게 文化大國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다져지는 한 「해」가 되기를, 이 「미술의 해」를 맞아 삼가 바란다.

언 어 장 애

金素媛(82년 看護大卒)언어장애연구소장

우리 주변을 관심있게 둘러보면 「언어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으며, 의외로 그 수가 많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점점 늘어가는 「언어장애자」의 수에 비해 이 분야의 치료기관 및 치료인력은 아직 많이 부족한 상태이며, 이러한 현실은 지방으로 갈수록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게다가 아직도 「언어장애」에 대한 정보가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라, 적절한 기관을 찾지 못하여 애를 태우는 사람들도 많이 보아왔다. 짧은 지면이나마 이 글을 통하여 「언어장애」에 대한 인식을 넓히는데 일조하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한다.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자신 이외의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게 된다. 유아기때에는 울음이나 미소, 몸짓, 소리 등을 사용하여 주변 사람들과 관계를 갖지만, 돌 무렵에 첫 낱말이 출현한 이후부터는 인간만이 누리는 특권인 「말」과 「글자」를 사용하여 의사소통을 하게 된다. 언어장애란 쉽게 말하면 의사소통의 수단인 「언어」, 특히 그 중에서도 「말」과 관련지어 나타나는 장애, 즉 자신의 의사를 말로 잘 표현하지 못하거나 남의 말을 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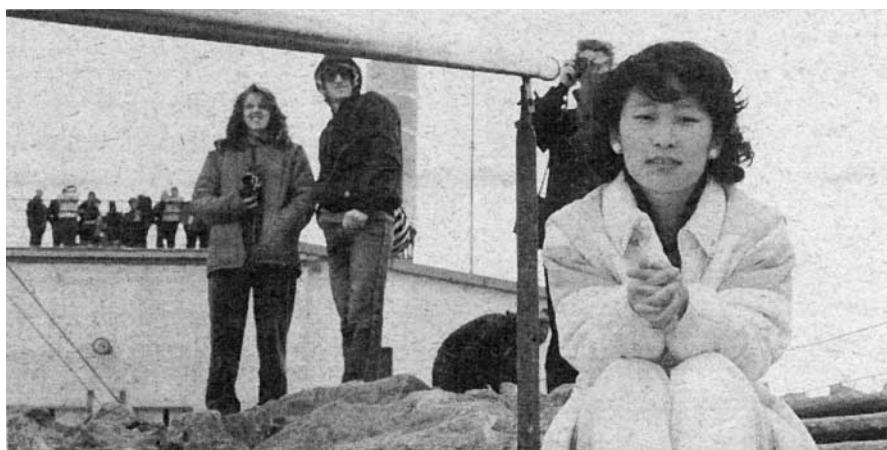
이해하지 못해서, 혹은 남의 말을 잘 듣지 못해서 생기는 의사소통상의 장애라고 정의할 수 있다.

대화없는 가정도 주요인

언어장애를 일으키는 원인을 살펴보면 크게 두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기질적 요인과 기능적 요인이 그것이다.

기질적 요인이라 함은 신경 또는 근육 운동의 신체적인 결함에 의해 언어장애가 생기는 것으로, 임신시의 모체 감염이나 질병 및 약물복용을 들 수 있고, 유전적 요인과 염색체 이상, 분만시 손상 및 출산 후 질병이나 사고 등을 그 요인으로 꼽을 수 있다. 그 외에도 요즘 부쩍 증가하고 있는 환경오염이나 약물중독, 교통사고 등도 기질적 요인에 속하는 것들이다. 이런 기질적 요인으로 생기는 언어장애의 종류로는 청각장애, 구개파열, 뇌성마비, 발성장애, 정신지체, 실어증 등이 있다.

기능적 요인이라 신체적인 결함과는 상관관계가 없는, 환경적 또는 정서적 요인을 의미하는데, 예를 들면 잘못된 언어습관이나 지나친 긴장과 불안, 좋지 않은 가정환경(말이 없는 가정, 편



모, 편부로 이루어진 가정, 부모의 과잉보호 가정, 늦은 귀가를 하는 맞벌이 부부의 가정) 등이 여기에 속한다. 기능적 요인으로 생기는 언어장애의 종류로는 단순 언어발달지체, 조음장애, 말더듬, 정서장애, 자폐증 등을 들 수 있다.

언어장애의 종류에 따라 그 치료법은 조금씩 다르지만 기본적인 원리는, 많은 언어자극을 반복적으로 주어서 상황에 맞는 적절한 반응을 유도해내고, 그것을 일반화시켜 어떠한 상황에서도 의사소통을 하는데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대부분은 전문 언어치료인이 치료를 담당하게 되겠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어머니 아빠, 형제들도 좋은 치료인력이 될 수 있다.

성격이상 초래하기도

언어장애를 치료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은 역시 적절한 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옛날 어른들의 말씀대로 「그냥 놔두면 저절로 말이 트일 것」이라고 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따라서 또래의 아이들과 비교하여 말이 많이 늦다거나 발음이 이상하다면, 일단은 전문 치료기관에 찾아가서 상담을 하고 적당한 치료를 받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다.

말의 발달이 늦은 어린이를 그냥 놔두게 되면, 학령기가 되어 학교에 들어가면서 「학습장애」라는 또다른 문제점을 낳게 되고, 「말」을 잘 못함으로써 매사에 자신이 없고 친구와의 관계도 원만하지 못하며, 난폭한 행동을 하는 등의 성격적인 결함까지 초래할 수 있으므로, 항상 관심을 가지고 전반적인 발달상태를 지켜보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하겠다.

모임

採訪

치우회

치대발전위해 1천 3백만원 출연

시인, 목사의 길 걷는 동기도 있어



치우회는 지난 2일 미국 LA에서 졸업35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앞줄 좌로부터 첫번째 楊熙一총무, 다섯번째 高寬成회장)

굳은 도시락으로 속채우고

치우회라 하면 60년 모교치대를 졸업한 14회 동기회의 별칭이다.

50년대를 소공동 캠퍼스에서 보낸 이들은 그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어렵고 배고픈 시절을 보냈다. 군복을 염색한 옷으로 1년을 버티고, 끼니를 거르기가 일쑤였으며, 어렵게 고학을 하는 친구도 많아 웬만한 거리는 걸어 다녔다.

하지만 요즘 대학생들이 지극히 현실적이고 개인주의적인데 반해 그들은 유난히 턱이 작은 여자친구를 짓궂게 해부하 용어인 「만디브라」라고 부르며 함께 몰려다니길 좋아했고, 음악감상실에서 문학과 인생을 논하는 낭만과 여유를 알았다.

치우회라는 이름으로 모이다

낙후된 교육환경을 극복하고 비교적 착실한 대학시절을 보낸 이들은 졸업한 후에는 얼굴 마주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 서로 가정을 꾸리고 기반을 닦느라 너무 바빴기 때문이었다. 대학문을 나선지 10년이 지나자 슬그머니 친구가 그리워졌다. 생활안정도 이루고, 치과계에서도 중진역할을 해내기 시작한 70년 10월, 몇몇 친구들이 만나 치우회를 창립하고 초대회장에 연장자인 金泳植동문을 추대했다. 그 이후로는 매월 14일 모임을 갖는데 부인들끼리의 모임도 있어 서로의 집안사정을 훤히 꿰고 있다.

미국에서의 졸업35주년 행사

90년 同會(당시 李庸五회장)는 제주

도여행을 겸해 졸업30주년 행사를 거하게 치루고, 행사중 마련한 3백만원 은 모교 발전기금으로 출연했다. 이 자리에서 35주년 기념식은 해외에 거주하는 동기들도 모이기 좋게 미국에서 개최하자는 의견이 나왔고, 몇년간의 준비끝에 95년 5월2일 미국 LA 코리아타운 소재 래디슨 플라자호텔에서 졸업35주년 행사를 개최했다.

독일, 캐나다, 일본등에서 살고 있는 10여명의 동기들을 포함해 70여명의 동기들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는 吳在仁박사, 金光根미주한인치과의사협회장, 李健燮재미치대동창회장도 초대됐다. 「금강산 등반」슬라이드 상영, 축시 낭송등으로 이어진 기념식은 마지막 교가합창에서 절정을 이뤄 해외거주 동문들은 30여년만에 만난 회포를 못이겨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이날 행사는 회갑잔치를 겸한터라 高寬成(고관성치과, 경희대외과교수) 회장과 楊熙一(양치과)총무, 李丙烈(덕수치과)재무는 하와이와 그랜드캐년, 라스베이거스 등 미국 서부를 여행하는 코스도 마련했고, 그동안 모아둔 사진을 모아 기념앨범도 제작할 계획이다. 또한 정성으로 마련한 1천만원은 모교를 위해 발전기금으로 출연키로 했다.

「外道」한 동기들도 많아

한국문인협회 회원이자 「미래시」 「표현문학」동인인 金泳勳동문은 시집 「꿈으로 날으는 새(시대문학사刊)」를 펴낸 시인이고, 黃圭宣(민주당 이천지구당위원장)동문은 붓글씨의 대가로서 소문나 있다. 이외에도 치우회 회원중

에는 남다른 인생을 사는 동기들이 많다.

제78차 국제라이온스 세계대회의 홍보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는 李大源(연희치과)동문은 펄벅재단 한국지부자문위원으로 오랫동안 혼혈아동과 양로원 및 정신박약아 후원사업에 참여해 왔다. 무의탁노인돕기, 청소년가장돕기, 무료개안수술돕기등은 물론 국민학교 교의로 구강보건 최우수학교를 만드는 데 기여했으며, 그동안 국민훈장 동백장, 대통령표창, 서울특별시장표창을 수상했다. 93년에는 한미간 청소년 문화교류에 대한 공을 인정받아 조지워싱턴대학교 총장으로부터 교육문화공로훈장을 받기도 했다.

朴宗三동문은 치대졸업 후, 장로회 신학대학에 편입했다. 독신의 몸으로 돌연 사회사업가로 변신한 차동문은 미국에서 사회사업학 석·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숭실대 사회과학대학장을 역임하면서 보건사회부 중앙아동복지위원, 한국가족치료학회 부회장등으로 활약했다. 현재도 불우아동을 위한 직업학교인 보이스 타운을 설립, 운영하며 자선사업과 소년재소자를 위한 복지사업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

2천년 졸업40주년을 기약하며

졸업은 1백13명이 했지만 10명의 동기가 유명을 달리하고 현재는 서울에 40여명, 지방에 35명, 해외에 18명이 있으며, 朴南洙(경희대교수), 鄭晉敎(연세대외과교수), 李貞植(서울중앙병원교수), 姜基鳳(조선대외과교수)동문들이 학계에서 활동중이다.

馬富一, 郭魯京(재미치과의사협회의회 부회장), 朴漢英, 金泳龍, 吳珍錫동문 등이 미국에서 개업의로 활동하고 있으며, 독일에 金聖恩(한독교민회장)동문, 캐나다에 李 檣, 劉鳳盛동문, 일본에 李載仁동문등이 거주하고 있다.

그 외에 金讚淑(치대동창회장·청아치과), 金吉洙(前치협총무), 金寅錫(약수치과), 金寬炯(이화치과), 文相仁, 徐相宙, 申光熙(신치과), 嚴必成(남북치과), 俞賢鎬(갈현치과), 李鍾玉(평화치과), 李起敏(동창치과), 全東鎭(바오르치과), 丁萬植(성심치과), 趙順德(서민치과), 朱洛林(한일치과), 崔正植(효정치과)동문등이 서울에서 개업의로 활동하고 있다.

지방에는 金珪完(부평치과), 任宗彬(기독교치과), 朱基錫, 余宗煥(한일치과), 金珉洙(유달치과), 金仲根(신신치과), 高大潤(고치과), 高鎔健(고치과), 金琦炫, 李仁昌, 羅浩雄(나치과), 朴幸運(박치과), 韓萬朝(한성치과), 李英姬(한양치과), 金鍾善(승의치과), 金鳳浩, 朴基朝(박치과), 尙基鍾, 李運永, 咸鳳順(합치과)동문등이 개원하고 있다. (志)

-알림-

동문 여러분이 참여하고 계신 동호모임이나 기과별 모임에 대한 원고와 사진을 받고 있습니다.

행사내용을 적어 편집부 앞으로 보내주시거나 제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TEL: 703-5954~5

FAX: 703-0755

문화
단신

新刊

■ 基督教과 儒敎
—鄭鏞斗 著

바울학회 장인 鄭鏞斗(57년 文理大卒) 동문이 철학적·윤리적·신학적인 입장에서 부류별·주제별로 엮은 대학인의 교양서. 鄭동문은 이 책을 통해 종교·철학과 참된 주체성을 발견, 창조적 가치관을 확립하는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성광문화사·값 5천원)

■ 우리가 산다는 것은
—張一河(本名 張斗煥)著

계간 時世界를 통해 등단한 張一河(65년 文理大卒) 동문이 문필 생활 30여년만에 시집을 내놓았다. 70여편으로 구성된 이 시집에는 모든 사물에 따뜻한 애정을 가져왔던 張동문의 내면이 숨김없이 드러나 있다.(삼하출판사·값 3천원)

■ 유전자
—崔尙圭 著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생물학과장인 崔尙圭(67년 文理大卒) 동문이 과학수사다큐멘터리를 펴내 화제가 되고 있다.

첨단수사기법인 유전자지문 감별법을 국내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들의 수사경험담을 바탕으로 풀어간 논픽션이다.(청림출판·값 5,500원)

■ 한국의 육상교통
—崔雲植 著

이화여대 교수로 재직중인 崔雲植(67년 師大卒) 동문이 교통에 관한 자료를 모아 책을 엮었다. 교통권·도로망의 분석, 재래와 현대의 교통기관 발달사 등 다양한 내용을 수록했다.(이화여대출판부·값 12,000원)

■ 洪城의 勞動謠
—李素娜 著

지난 93년 제34회 전국민속경연에서 종합 최우수 대통령상을 획득한 충남 홍성군의 민요를 집대성한 소중한 책자가 발간됐다.

필자 李素娜(68년 法大卒·문화재전문위원) 동문은 이 책 속에 86년부터 94년까지 홍성군 2읍 9개면 62개 마을의 가창자들을 직접 만나 녹음조사하고 채보 분석한 악보 3백49곡을 종합적인 해설과 함께 수록했다.(홍성문화원·값 3만원)

■ 에로스 타나토스
—李那美 著

정신과의사이자 방송진행자로 친숙한 李那美(85년 醫大卒) 동문의 수필집. 李동문은 이 책에서 에로스와 타나토스가 건강하게 결부됐을 때 인간과 문화는 탄생(재생)하고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평단문화사·값 5,800원)

公演

■ 金周妍바이올린독주회

—6월12일 예술의 전당

바이올리니스트 金周妍(88년 音大卒) 동문의 귀국 독주회.

일찌기 한국일보 콩쿨 1위,

예원 콩쿨 금상, 육영 콩쿨 1위 입상 등 유수 콩쿨을 석권한 金동문은 이날 브람스, 바흐, 쇼송, 슈트라우스의 작품을 연주한다.

■ 吳光浩클라리넷독주회

—6월23일 세종문화회관

현재 독일 브라운 슈바이크 시립음악원, 국립교향악단의 수석주자로 재직중인 吳光浩(74년 音大卒) 동문이 金允貞(69년 音大卒) 동문의 피아노 반주에 맞춰 연주회를 갖는다.

이날 소강당에서 루토스와프스키, 베버, 베르만의 작품을 연주한다.



(정리=安興燮기자)

화제의 동문

시인 黃芝雨

조각으로 표출한 詩想



날카로운 풍자와 강렬한 비판정신으로, 80년대를 살아오며 지식인으로서 느꼈던 고통과 슬픔을 시로 표현해 문단의 주목을 받았던 黃芝雨(79년 人文大卒·한신대교수) 동문이 최근 조각전을 가졌다.

지난 9일부터 21일까지 관훈동 「학교재」에서 열린 「저물

면서 빛나는 바다」란 이름의 전시회는 시인이 혹독한 노동을 필요로 하는 조각을 했다는 점에서도 눈길을 끌지만, 黃동문 자신에게도 남다른 의미가 있다.

80년대를 지나 90년대로 넘어오면서 黃동문은 자신의 시가 지니는 존재의미와 방향감

각을 잃고 심한 무력감에 빠졌다. 그러다 우연한 기회에 진흙을 접하면서 始原의인 생명 의식에 감전돼, 피곤하고 고달픈 삶일지라도 그 삶을 의미 있고 가치있게 받아들일 수 있는 詩心을 되찾게 됐다. 흙과의 만남, 뜨거운 노동을 통해서 자신의 세계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더 얻게 된 것이다.

작품의 대부분은 찌그러지고 부숴진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다. 존재론적인 피곤함, 그러나 우리는 그 속에서 독하고도 질긴 생명력을 느낄 수 있다.

黃동문의 외도가 전혀 엉뚱한 것만은 아니다. 실제 미술학과에 지망하려 했었고, 연하장을 직접 그리거나, 책의 표지를 손수 꾸며 그의 재능을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다. 그럼에도 한 시인의 전시회가 세인의 눈을 끌고, 수많은 벗들의 축하를 받은 이유는 고문과 억압속에서도 할 말은 했던 黃芝雨, 그러나 새롭게 태어난 黃芝雨가 돌아왔다는 無言의 인사였기 때문이다.

(志)

“동문여러분 年會費를 납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理事: 4월5일 ~ 18일 · 一般: 4월8일 ~ 17일〉

회 장 단

▲회 장 金在淳= 5백만원
▲명예회장 李壽成= 7만원
▲상임부회장 鄭宗澤= 50만원
▲부 회 장 具平會= 1백만원
▲부 회 장 金相慶= 1백만원
▲부 회 장 朴容晟= 1백만원
▲부 회 장 金善弘= 1백만원
▲부 회 장 馬景錫= 1백만원
▲부 회 장 張翼龍= 1백만원
▲부 회 장 徐廷和= 50만원
▲부 회 장 崔秉烈= 50만원
▲부 회 장 李祥義= 50만원
▲부 회 장 白樂院= 1백만원
▲부 회 장 申榮均= 1백만원
▲부 회 장 崔元榮= 1백만원
▲감 사 方孝宣= 30만원

상 임 이 사

▲李光魯 공과대학동창회장
= 20만원
▲金範來 수의과학대학동창
회장= 20만원
▲李春根 치과대학동창회장
= 20만원
▲李燦河 경영대학원동창회
장= 20만원
▲李喆玉 보건대학원동창회
장= 20만원
▲姜敏求 행정대학원동창회
장= 20만원
▲朴亨錫 환경대학원동창회
장= 20만원

관 악 회

▲이사 許鎭奎= 30만원
▲이사 金道和= 30만원
▲이사 朴冠鎬= 30만원
▲이사 申讚雨= 30만원
▲감사 白文基= 30만원
▲감사 朴英俊= 30만원

이 사

◇人文大學

▲김중겸⑦駐동경대사관
▲최갑수⑦서울대교수

◇社會科學大學

▲김정구⑦대한투자신탁차장
▲이영두⑦동아석재부사장
▲이천복⑦보람은행과장
▲조현래⑦변호사
▲황주철⑦동일건설전무

◇家政大學

▲김명자⑥숙명여대교수
▲박종식⑥前덕성여대교수
▲유영주⑥경희대교수
▲임정빈⑥한양대교수
▲정하진⑥건국대교수
▲조순옥⑥서울교대교수

◇經營大學

▲하부열⑧삼화섬유전무

◇工科大學

▲김봉빈④엘칸토고문
▲김유선④강원산업고문
▲강명순④수원전문대학장
▲심주섭④로움코리아고문
▲김덕영④롯데기공기술고문
▲이공주④초현조경개발회장
▲한병록④지산건설영상임고문
▲강기세⑥번건축건설턴트
▲강신규⑥현대녹음사장
▲강홍섭⑥태광산업상무
▲경세호⑥가희상사사장
▲고재웅⑥건국대교수
▲권병우⑥덕성여고교사
▲김경기⑥한양대교수
▲김명근⑥국동건설부회장
▲김무현⑥진아건축사장
▲김병준⑥삼화기업사장
▲김병찬⑦前성균관대부총장
▲김상길⑥동성지질사장
▲김상연⑥유평테크사장
▲김순모⑥럭키DC실리콘
▲김용재⑥현대알미늄사장
▲김용환⑦대림산업석유화학
▲김유희⑥동산씨엔지전무
▲김은영⑥KAIST원장
▲김일진⑥영남대교수
▲김정수⑦현대정공상무
▲김정식⑥대덕전자회장
▲김정웅⑦대우중공업고문
▲김주홍⑥한진화학회장
▲김창세⑥제일국제특허법률
▲김창수⑥부한산업사장
▲김창현⑦삼립식품전무
▲김학준⑦삼성중공업이사
▲김희재⑥태일송풍기사장
▲남정현⑥대우ENG대표
▲남학우⑥한국산업증권고문
▲노 훈⑥협진광화학사장
▲노창복⑥건설저온냉장사장
▲명계복⑥동일기술공사
▲문광순⑥계면공학연구소장
▲문수동⑦호유에너지상무
▲문희성⑦한전이사장
▲민경식⑥백산ENG고문
▲민계식⑥현대중공업부사장
▲박영희⑥오주개발사장
▲박인근⑥법창양행사장
▲박창순⑥강신산업사장
▲박효봉⑥백광산업사장
▲부대진⑥진아건축사장
▲서완수⑦BASF코리아이사
▲서재영⑦서방일업사장
▲서진근⑥중앙학원이사장
▲성기수⑥KAIST연구소
▲손해동⑥대림금속공업회장
▲송기덕⑦정일ENG사장
▲송주철⑥한국관세연구소장
▲신동수⑥동명기술공단회장
▲신재용⑥서울종합터미널
▲신현석⑥종합전기부사장
▲신현주⑥LG화학부사장
▲심옥진⑥현대건설전무
▲심재승⑥우성산업사장
▲안병준⑦삼성하우징시스템
▲안호준⑥군자산업사장
▲양수길⑦교통개발연구원장
▲양정웅⑥(주)코아사장
▲엄채영⑥건설ENG사장

▲염사연⑦현대ENG상무
▲염홍주⑦오주산업사장
▲오세현⑥신원산업사장
▲오승환⑦바이엘코리아이사
▲우인성⑥한국피셔과학사장
▲유영주⑥
▲윤문섭⑥우방물산회장
▲윤병화⑥우방무역사장
▲윤순용⑥LG ENG부사장
▲윤종량⑦럭키ENG研이사
▲윤종룡⑥삼성전관사장
▲윤충중⑥센트럴서비스사장
▲윤팔문⑥동흥공업사장
▲이계호⑥前광양제철고문
▲이관용⑥중원전기공업사장
▲이근수⑥(주)풍산부사장
▲이기창⑥前서울시건설본부
▲이대원⑥前국제전선고문
▲이동춘⑦대명산업사장
▲이면우⑥서울대교수
▲이봉규⑥감리사
▲이부섭⑥동진화성공업사장
▲이상순⑥롯데건설사장
▲이세기⑦포항도금강판사장
▲이성조⑦코오롱기술상무
▲이영재⑥(주)경국사장
▲이영호⑥중외제약감사
▲이원형⑦뉴영남호텔부사장
▲이정인⑥서울대교수
▲이종대⑥백산강재사장
▲이준식⑥광주전자사장
▲이철순⑦백률건축사무소장
▲이현구⑥(주)대우부사장
▲이훈식⑦前한국물가協전무
▲이희국⑦LG반도체상무
▲임정명⑥부산대교수
▲장명수⑥전북대총장
▲장삼진⑥바이엘코리아
▲장진양⑦대림산업상무
▲장학순⑥삼양정수공업회장
▲정명식⑥前포항중합제철
▲정연철⑦풍국기업사장
▲정영철⑥감정평가사
▲정진화⑦지암ENG사장
▲정홍용⑥동부제강상무
▲조복제⑥동성교역사장
▲조선휘⑥서울대 명예교수
▲조수길⑦한국미쓰이코리아
▲조정완⑥KIST교수
▲조창걸⑥한샘사장
▲조필제⑥세양주택회장
▲채방은⑦부산지검차장검사
▲최관영⑥일건건축사무소장
▲최상홍⑥한일기술研회장
▲최영해⑥이화전기공업전무
▲최인재⑦(주)협우사장
▲최창영⑥고려아연부회장
▲최흥민⑥한국로드회장
▲추지석⑥효성BASF사장
▲편도권⑥유신설계부사장
▲표상기⑥상지상사사장
▲하완식⑦서울대교수
▲한상겸⑦우림건축사장
▲한성갑⑥LG고문
▲황상일⑥서광산업감사

◇農科大學

▲유병현⑥
▲조용철⑥농지개발研이사

▲곽영철⑥동아건설부사장
▲김삼식⑦경상대교수
▲김원세⑥금속회장
▲김진익⑥제일사료사장
▲박순직⑦방통대교수
▲박정운⑥식품연구개발원
▲신문수⑥미성농약사장
▲심영근⑥前서울대교수
▲심완조⑥덕은산업사장
▲오세인⑥아세아종합기계
▲이수오⑦창원대총장
▲이영돈⑦성은산업사장
▲장우상⑦청소년聯사무국장
▲정구현⑦경기건설진흥공단
▲홍 진⑥(주)금복주부사장

◇文理科大學

▲강현욱⑥前농수산부장관
▲고일남⑥경북통산사장
▲곽화영⑦에너지관리공단
▲김경환⑥(주)태경사장
▲김규상⑦일진산업회장
▲김기섭⑦안기부기조실장
▲김기주⑥서울교대총장
▲김두희⑥前숙명여대교수
▲김명혁⑥수원합동신학교
▲김병익⑥문화과 지성사
▲김성열⑥前동아일보고문
▲김영구⑦한영주유소사장
▲김재영⑥전북대행정대원장
▲민칠식⑦대원관리사장
▲박상대⑥서울대연구처장
▲박용안⑥서울대교수
▲박찬범⑥전국택시공제조합
▲송희성⑥서울대교수
▲신광순⑥前국회의원
▲신우하⑥서울대교수
▲신우식⑦영상자료원이사장
▲심계섭⑥서울시교통회관
▲여성국⑦대우회장비서실
▲오덕근⑦한이해운사장
▲유병덕⑥천록건물개발사장
▲윤종혁⑦홍익대교수
▲윤천주⑦前서울대총장
▲이규원⑥현대문예사사장
▲이남기⑥前수원대강사
▲이병기⑦안기부특별보좌관
▲이상렬⑦목포KBS위원
▲이성해⑥정보통신부국장
▲이주용⑥한국전자계산회장
▲이창수⑥삼익건설회장
▲전상호⑥농심데이터사장
▲전용성⑥변호사
▲정병오⑦대우증권역점지점
▲정세화⑦이대부속중교교장
▲정소성⑥단국대교수
▲정연춘⑥교육방송원장
▲정중환⑥건설화학공업전무
▲조규광⑥헌법재판소자문
▲진정일⑥고려대교수
▲최규봉⑦변호사
▲최서영⑥노원유선방송사장
▲최호중⑥자유총연맹총재
▲표순승⑥건국대교수
▲하영식⑥경기대교수
▲함홍근⑥이화여대교수

◇美術大學

▲권오선⑥명문미술학원장

▲김 태⑥서울대교수
▲백병기⑦구정중학교장
▲백태호⑦창열방실장
▲윤형규⑥광명인쇄전무
▲정탁영⑥서울대교수
▲조수도⑦前대유공전교수

◇法科大學

▲유성삼⑥LG전자전무
▲강규석⑥관세사무소
▲강성재⑥국회의원
▲강순걸⑥유성물산교역사장
▲강현중⑥변호사
▲고왕석⑥변호사
▲고재량⑥변호사
▲고현석⑥
▲고형규⑥변호사
▲구자춘⑥세우산업회장
▲권기수⑦변호사
▲금병훈⑥변호사
▲김건균⑥동신제지공업고문
▲김경태⑥前관세청장
▲김권택⑦변호사
▲김기천⑥변호사
▲김길대⑥前우방전무
▲김덕영⑥前충북도지사
▲김선중⑦충천지원부장판사
▲김성근⑥변호사
▲김성산⑥사회복지사업부장
▲김시승⑥부산지법동부지원
▲김신택⑥변호사
▲김양모⑥前신아화학감사
▲김예환⑥예일여고교장
▲김유원⑥前전경주지점장
▲김유후⑥변호사
▲김윤호⑥서울지검부장검사
▲김응용⑥前전서광주지점장
▲김재규⑥전주한일교교장
▲김재덕⑦유니테크상사사장
▲김재하⑥대안관세사무소장
▲김재휴⑦前승리기계제작소
▲김정득⑥제일중공사장
▲김정술⑦서울지원부장판사
▲김종국⑥진안통상사장
▲김준섭⑥장기신용銀이사
▲김진석⑥변호사
▲김창섭⑦건설부도시계획과
▲김치선⑥노사발전研원장
▲김태조⑥변호사
▲김태현⑥변호사
▲김태후⑦현대미포조선부장
▲김택정⑦변호사
▲김허남⑥부산실고이사장
▲김현채⑥변호사
▲김형기⑥변호사
▲김홍규⑦연세대교수
▲나육균⑥한화비서실상무
▲나중태⑦충천지원부장판사
▲목영준⑦청주지원부장판사
▲문규상⑦부산지법동부지원
▲문영국⑥관세사무소
▲문홍주⑥미국헌법研이사장
▲박경구⑥변호사
▲박경보⑦변호사
▲박경재⑥변호사
▲박길수⑦사조산업상무
▲박대운⑥충북대교수
▲박두환⑥변호사
▲박부찬⑥지방자치경영협회

▲박성근③제일銀국제부장
▲박영선⑥세무사
▲박영준⑧코리아리서치센터
▲박재운⑨국민대법대학장
▲박종록⑦수원지검특수부장
▲박종욱⑦변호사
▲박철식⑤변호사
▲박철우②변호사
▲박태영④한전중부산지점장
▲박혁상⑧미우기획사장
▲반현수④변호사
▲배기운⑦민주당
▲배석필②한국어문화이사
▲배영길⑨지방자치연구원
▲배용범⑦변호사
▲서규택⑤동성제약부회장
▲서두인⑤동아엔탈부회장
▲서성영④성일공사감사
▲성천경④보람은행상무
▲손기식⑦서울민사지원
▲손진규④한국감정원장
▲손수익⑥국토개발연구원
▲손용태⑨신보리스부사장
▲손제희②변호사
▲손진곤④변호사
▲송웅순⑦삼성그룹법무실장
▲송재룡②농협여의도지점장
▲송진훈⑤대구지원장
▲신 홍②서울시립대교수
▲신성국⑦변호사
▲신장순①前유정상사사장
▲심우영④경상북도도지사
▲안우만⑥법무부장관
▲양대치⑤대일물산사장
▲양승찬⑦변호사
▲양영태②변호사
▲여동영④변호사
▲여우중②세아하이테크사장
▲우창록⑦변호사
▲원우현⑥고려대교수
▲유 훈⑤前서울대교수
▲유기선⑤유기선의원장
▲유길수⑥변호사
▲유석원⑤前선경고문
▲유인수①한국銀광주지점장
▲유종해⑤연세대교수
▲유창중⑥광주지검순천지청
▲유철호⑤前선경증권사장
▲유희철⑥한국타이어제조
▲윤석용④(주)미원부사장
▲윤태남⑥한양공영이사
▲이강혁⑤공법학회장
▲이건방②변호사
▲이경우⑦석유개발공사부장
▲이경호⑥한국후지쯔사장
▲이규오⑦前제지공업聯회장
▲이동희①관광協상근부회장
▲이명희⑦변호사
▲이무룡⑥국동도시가스사장
▲이병호⑥남방개발사장
▲이사목④변호사
▲이상철⑤동계유니버시아드
▲이석우⑦변호사
▲이세창①태양연마부사장
▲이술진④변호사
▲이영욱⑤변호사
▲이영준⑥변호사
▲이원철⑦변호사
▲이유영⑦변호사
▲이인상④(주)선경부사장
▲이인호⑧산업銀동울산지점
▲이재후②변호사
▲이재희②동부고속사장
▲이종용⑥한라해운사장
▲이환근④관세청장
▲임내현⑦국제법률의학관

▲임두빈⑦변호사
▲임명순⑤前정풍물산감사
▲임봉규⑥효성금속전무
▲임종선⑥변호사
▲임재홍⑤변호사
▲장병규⑦두원공전학장
▲장창호⑦대구고검검사
▲장한각⑦변호사
▲전선기④기아특수강전무
▲전윤철⑤공정거래위원회
▲전종규⑥의환銀대구지점장
▲정기호④국회의원
▲정명래④변호사
▲정시영④변호사
▲정은구④삼영익스프레스
▲정정일③현대종합상사
▲정태창③신일흥산사장
▲정해창⑥변호사
▲정형근③前안기부제1차장
▲정휘위⑥동림학원이사장
▲조병길⑦변호사
▲조석제③한국유통사장
▲조영일⑥변호사
▲조택근③아주생명보험전무
▲진 영⑦변호사
▲차맹진⑥통신경영자문위원
▲최규영⑥해운조합이사장
▲최규철⑥동명중공업사장
▲최상엽⑥변호사
▲최석원⑤삼환기업상임고문
▲최원백⑤반도산업사장
▲하일부⑥변호사
▲한기선⑥법양상선회장
▲한승희⑥이건상사사장
▲한영희⑤한국상사사장
▲한지연⑥공영화물터미널
▲한진유④미도파백화점
▲한준희⑤변호사
▲허홍구⑥경향운수사장
▲현중찬⑦변호사
▲홍경용④경광상사사장
▲홍돈표⑦한국銀춘천지점장
▲황명찬⑥전국대교수
▲황병호⑤산업銀부총재
▲황수길⑦밀양세무서장
▲황영하⑥前총무처장관
▲황의만⑦변호사
▲황이연⑥보훈복지공부사장
▲황찬홍⑥(주)진진전무

◇ 師範大學

▲박화서④前성서국교장
▲강신주⑤삼신전자사장
▲고경순⑤부산외대교수
▲김남조⑤前숙명여대교수
▲김영근③애경화화대표
▲김장화⑤보성고교감
▲문상호⑤정남산업회장
▲박송자⑦KIST책임연구원
▲박영석④조선기기상사사장
▲박종달④국제예식장사장
▲박종세⑤아시아컴 회장
▲서병수⑤한양대교수
▲서용웅⑥한샘출판사회장
▲서군성⑤효성여대사대학장
▲승만호⑧용산관광터미널
▲신상철⑦한생사장
▲신철순⑥전북대교수
▲심진호⑦선진무역상사사장
▲유종현⑥대한제당이사
▲윤명렬⑦광양중교장
▲이 찬⑤문화지리학회 회장
▲이봉준③아현중교장
▲이상연④중원중교장
▲이석구⑥부산공고교장
▲이석우④해양과학기술사장

▲이석조⑤금호레미콘사장
▲이원순④국사편찬위원회장
▲이응백④국어교육연구소장
▲이환의⑤국회의원
▲이희호⑤亞太平화재단이사
▲임장규⑦난곡중교장
▲장보용⑤전남대교수
▲정문환⑥중부교육청과장
▲정연우④정인인터내셔널사장
▲정완호③한국교원대교수
▲정창현⑦한국교원대교수
▲조용락⑤변호사
▲최용준⑤전재교육사장
▲최진오⑥담당실업사장
▲최태상⑦경중고교장
▲한진희③제일건설사장
▲황승기⑦승산학원장

◇ 商科大學

▲이태승④前강원은행장
▲김완기⑤가야문화연구소장
▲서주성④연세장학회이사장
▲강동석⑥국민리스부사장
▲강수현②대동벽지사장
▲강신돈⑦국민대교수
▲강신찬⑦두려상사사장
▲공정근⑤前효성물산부회장
▲곽 현②우민상사사장
▲구선화⑥BC카드감사
▲구정희⑥대일기계공업사장
▲권태명④동아출판사사장
▲김태원⑥前신용보증고문
▲김광선⑥동구통상이사
▲김광연②영동석유사장
▲김광진⑥울산투자금융감사
▲김남현⑦前대창흥업상무
▲김덕기⑥펜타항공사장
▲김도연⑥한솔제지부사장
▲김병기⑤세무사
▲김상균⑤한국감정원상무
▲김선영⑦토미제화사장
▲김선중⑥(주)진로사장
▲김성은⑦남양산업사장
▲김시영⑦前고려화재이사
▲김영석⑥서은상호신용회장
▲김영일⑤신봉기업사장
▲김우년⑥前삼익악기전무
▲김웅세⑦롯데월드사장
▲김웅태⑦신영증권이사
▲김진주⑥포항제철부사장
▲김태두⑥조흥증권상임고문
▲김현근⑦삼성반도체부사장
▲류종목⑤한국단철공업사장
▲문성철⑤영화회계법인고문
▲문언석⑤세일중공업사장
▲민경재⑤광은리스회장
▲민병태④아세아종합금융
▲박건영⑥산업銀강남지점장
▲박경상⑤중부지방국세청장
▲박노성⑥금암실업사장
▲박영배⑦상산소재사장
▲박육근⑦삼환기업이사
▲박인철③오성섬유사장
▲박찬문⑦전북은행장
▲박청부⑤前한국가스공사장
▲백구현⑥국제과학협력센터
▲백문규⑤농지개발(주)사장
▲서태식③삼일회계법인회장
▲손석주⑤남광ENG회장
▲송진섭⑤前한미강업회장
▲신복영⑤금융결제원장
▲신승철③한양대교수
▲신유근④서울대교수
▲심근섭④대우경제연구전무
▲심상국③남경개발회장
▲안경태⑦삼일회계법인이사

▲안혜진⑦기업銀부행장보
▲안홍환⑦현대석유화학이사
▲양승현④(주)경방고문
▲예종호③前한전남양주지점
▲오세영⑤국제통운상무
▲원우식⑥한보상호신용사장
▲유영일⑦해태상사부회장
▲윤승준⑥한국상호신용금고
▲윤하균⑥수산스타사장
▲이갑식⑤유양기업사장
▲이구용⑥한솔건설사장
▲이명기③(주)모라도전무
▲이병식⑥회계사
▲이상빈⑦KAIST교수
▲이성구⑦동방포루마사장
▲이성태⑥한국銀창원지점장
▲이연재⑥현대중공업전무
▲이용성⑥前은행감독원
▲이용이⑥지성산업사장
▲이용호⑦협진양행회장
▲이용휘⑥중외제약감사
▲이일훈⑥前동부창업투자
▲이재원⑥새한랜탈사장
▲이종순⑥현대건설전무
▲이종현⑥덕인양행사장
▲이창복⑥농협중앙회
▲이창희⑥부산은행장
▲이충우⑥백산그룹비서실장
▲이항철③前남해화학교문
▲임현섭①조흥銀연수원장
▲장무웅⑥(주)미화당부회장
▲장석정⑤석유개발공사사장
▲전재희③대우투자자문사장
▲전정구⑥변호사
▲전종혁⑥동아임산부회장
▲정병호⑦인천향만문송협회
▲정소영①고려종합경제研
▲정인직④서울증권사장
▲정진택⑦수원세무서장
▲조병해⑦서울향료사장
▲조의진⑥호진성업사장
▲주동석④삼양사전무
▲채길수⑦동방재무컨설팅
▲최 돈⑦우림인택사장
▲최선욱⑦의환銀정보시스템
▲최성식⑥대구투자금융감사
▲최수병③조선대초빙교수
▲최수일⑥대원산업개발사장
▲최하식④동아데이터시스템
▲표계영③한일銀검사부장
▲한상현⑥삼표산업사장
▲한일상⑥강남기업사장
▲한찬수⑤대림수산업전무
▲허병섭⑦대하전기사장
▲허성길④나라통상사장
▲허성용⑤상산소재사장
▲황동규⑦고려상사부사장
▲황창연⑥회계사
▲황하현③한양대교수

◇ 獸醫科大學

▲박근식⑦수의과학연구소
▲박현기⑦충남가축위생시험
▲윤화중③전국대교수
▲이각모⑨(주)동방사장
▲이종범③태림모피사장
▲이중희③한국특수사료사장
▲이희구⑥前법한약품사장
▲장인호⑤경북대교수
▲천병득③축산협동조합감사
▲한인식③(주)동방전무

◇ 藥學大學

▲권 박⑥한국세림부사장
▲김선중⑥한국통프라로라
▲김영일⑤유한화학상무

▲김장호⑥세심약국
▲민신흥④동아제약전무
▲박 열⑥한국세림부사장
▲박동순④신암우리약국
▲백성기③한신모방사장
▲빈판호⑥제일약국
▲서영거⑦서울대교수
▲송영준⑦송근당이사
▲송창진⑤송원약품회장
▲양현하⑦한국로슈이사
▲우종균⑥동양화학사장
▲유태현③보람화학사장
▲이가평④수정약국
▲이기연②순창지업사장
▲이승본③前태을약국
▲이홍일⑦한국캠브로상무
▲장안수⑦동아제약상무
▲조내규②제중당약국
▲진 강⑥의료보험관리공단
▲한규홍⑥동아제약이사
▲한상후⑥내외신약사장
▲홍정근③前불암약국
▲황의성⑤(주)십자성약사

◇ 音樂大學

▲김 석⑥경희대교수
▲김명주⑦
▲김홍련⑥아세아방송이사
▲서우석④서울대음대학장
▲이성천⑥서울대교수
▲이신화⑥김천예고교장
▲이재숙③서울대교수
▲조삼진②전국대교수

◇ 醫科大學

▲김진조④김내과의원장
▲한격부④동부시립요양원장
▲강형운④동산재활의원장
▲권경철④권의원장
▲윤준식⑤교산의료원장
▲전종희③前仁濟의대학장
▲강세운⑥강남성모병원
▲강윤식⑦서울외과클리닉
▲강조웅⑥서울정형외과원장
▲고계환⑦정형외과의원장
▲권기택④권안과의원장
▲김계태⑦소아과의원장
▲김광전⑦청구성심병원과장
▲김광희⑥한일병원내과
▲김국기⑦경희대교수
▲김기선⑦광주피부과의원장
▲김동진⑦강남병원산부인과
▲김명주⑥한강정형외과원장
▲김명호⑦단국대교수
▲김영덕⑥원효로의원장
▲김원동⑥중앙병원내과과장
▲김재복⑤마포구보건소장
▲김중환⑥내과의원장
▲김청수⑦산부인과의원장
▲김풍명⑦명피부과의원장
▲김호섭⑤보미의원장
▲노동두⑤백제병원장
▲노준량⑥서울대교수
▲문한규⑦부산대교수
▲문효중②피부비뇨기과원장
▲박경호⑤이비인후과의원장
▲박귀원⑦서울대병원과장
▲박기복⑤원자력병원부장
▲박원재⑥소아과의원장
▲박원희⑦인하대교수
▲박인서⑥제일병원고문
▲박희옥⑥산부인과의원장
▲백만기⑦서울대교수
▲성상철⑦서울대교수
▲송원식⑦송외과의원장
▲신순현⑥중앙대교수

▲심보성⁴⁹서울대교수
▲오경근⁵⁰前오산부인과원장
▲오준식⁵¹이비인후과의원장
▲우동영⁵²우동영의원장
▲원중희⁵³충북대교수
▲유 건⁵⁴유건내과원장
▲유성희⁵⁵동서울병원장
▲유인상⁵⁶전주안과의원장
▲이 훈⁵⁷천안의료원부장
▲이광호⁵⁸경상대교수
▲이대규⁵⁹민경산업사장
▲이민재⁶⁰고려대교수
▲이민호⁶¹한양대교수
▲이성우⁶²남산병원장
▲이성준⁶³계명대의대교수
▲이순용⁶⁴인제의대교수
▲이정상⁶⁵서울대교수
▲이종구⁶⁶서울중앙병원소장
▲이종만⁶⁷소아과의원장
▲이종태⁶⁸세브란스병원과장
▲이진오⁶⁹원자력병원장
▲이학중⁷⁰단국대교수
▲이호급⁷¹중구보건소장
▲장선택⁷²중대필동병원
▲장환식⁷³서울대병원과장
▲정경태⁷⁴내과의원장
▲정동철⁷⁵신경정신과원장
▲정원석⁷⁶동서울병원과장
▲조경환⁷⁷조경환의원장
▲조명하⁷⁸외과의원장
▲조병규⁷⁹서울대교수
▲조세현⁸⁰경상의대교수
▲지영일⁸¹신일병원장
▲최윤백⁸²서울중앙병원
▲최진수⁸³내과의원장
▲최호용⁸⁴산부인과원장
▲하권익⁸⁵삼성의료원
▲한인권⁸⁶제일병원내과과장
▲허봉렬⁸⁷서울대교수
▲홍경표⁸⁸삼성의료원
▲홍창의⁸⁹울산의대교수

◇齒科大學

▲신경호⁴¹신경호치과의원
▲김현구⁵⁰남문치과의원
▲최재환⁵¹삼양치과의원
▲한국영⁵⁰한국영치과의원
▲강기봉⁶⁰강치과의원
▲김길태⁷¹김길태치과의원
▲김두현⁶⁴김두현치과의원
▲김문기⁷³한양치과의원
▲김성룡⁶⁴김성룡치과의원
▲김애라⁸⁰목치과의원
▲김영철⁶⁷달성치과의원
▲김용준⁶⁸김용준치과의원
▲김윤영⁶²자혜치과의원
▲김철호⁷⁶김철호치과의원
▲김현룡⁶⁶김현룡치과의원
▲박길강⁶⁴한미치과의원
▲박인출⁷⁷예치과의원
▲박주형⁷⁵박주형치과의원
▲박진환⁵⁵박진환치과의원
▲박찬유⁷¹박찬유치과의원
▲백동준⁶²백동준치과의원
▲서진관⁵⁷한일치과의원
▲성백균⁷¹성백균치과의원
▲성재현⁷²경북대교수
▲손 근⁷¹손치과의원
▲손광용⁶⁶성모치과의원
▲송철규⁷⁴송철규치과의원
▲신현철⁸⁰신현철치과의원
▲양정강⁶²양정강치과의원
▲이규철⁶⁸이규철치과의원
▲이병환⁶⁵세명치과의원
▲이상일⁶²이치과의원
▲이승부⁶⁸이태원치과의원

▲이영희⁶⁰한양치과의원
▲이용오⁶⁰제일치과의원
▲이진근⁷⁰부치과의원
▲이창희⁵³이창희치과의원
▲임장섭⁵⁸임치과의원
▲정소영⁵⁶정소영치과의원
▲정종평⁶⁹서울대교수
▲조택순⁷³순도치과의원
▲주관철⁶⁵의당치과의원
▲최봉식⁷⁴최봉식치과의원
▲한중희⁷²한중희치과의원
▲현군자⁶⁷현치과의원
▲홍병준⁶²홍병준치과의원
▲홍성식⁷⁰일신치과의원
▲황의왕⁶⁷황의왕치과의원

◇大學院

▲김태승⁷⁸호유판매전무
▲황재윤⁷⁸공인회계사

◇經營大學院

▲김두찬⁶⁷윙곡문화원장
▲김선대⁷²한국참전예술인協
▲김임식⁷⁰동의대교수
▲김환중⁷⁰우영산업회장
▲박정남⁷⁴(주)신한이사
▲허형무⁷²동선합성사무
▲황길태⁶⁷前달성공단이사장

◇保健大學院

▲김남주⁶⁸잠실한의원장
▲김부영⁷³국립보건연구원
▲김수철⁶⁷성형외과의원장
▲윤석춘⁶¹한국산업안전공단

◇司法大學院

▲김용환⁶⁸변호사
▲김태정⁶⁷부산지검검사장
▲노승환⁶⁵변호사
▲문종수⁶⁴변호사
▲석용진⁶⁷변호사
▲신상두⁶⁶창원지검검사장
▲신창언⁷⁶헌법재판소재판관
▲이우길⁶⁶변호사
▲최영광⁶⁷서울지검검사장

◇新聞大學院

▲김기도⁷²국회의원
▲김원기⁶⁸국회의원
▲김태문⁷³쌍용중앙연수원장
▲이근수⁶⁹소호컨트리클럽
▲이명화⁶⁹덕성무역회장

◇行政大學院

▲김상국⁷²한국통신공사
▲김익영⁶⁸신용보증기금감사
▲김종인⁶⁴동영알루미늄사장
▲김태석⁷⁰주택은행
▲문창수⁶⁴전남발전위원장
▲문희갑⁶⁶前국회의원
▲서재근⁶⁴신한국창조운동
▲신윤식⁷⁰데이콤고문
▲이계락⁷²경희대교수
▲이준웅⁷⁵국제경영연구이사장
▲이정환⁶⁷스파마트로사장
▲이치업⁶¹BETZ화학고문
▲이호계⁶⁸토지개발공사사장
▲임경호⁶⁵前내무부차관보
▲장승태⁶¹진로그룹고문
▲정경모⁶⁷해외선박회장
▲조상호⁶⁵신원윌드회장
▲주병덕⁷⁹前충북도지사
▲황갑순⁶¹지역개발학회장

◇環境大學院

▲권 원⁷⁸(주)건영부사장

일 반

◇人文大學

▲김기현⁴⁶ ▲김기태⁶⁵
▲김상호⁸⁵ ▲박혜경⁸⁸
▲유 진⁸³ ▲이봉연⁸⁷
▲이정화⁸⁶ ▲이지혜⁸⁸
▲전장환⁷⁸ ▲조인식⁸⁷
▲최규식⁷⁷ ▲최윤선⁸⁷
▲한혜원⁸⁷

◇社會科學大學

▲강재상⁸⁹ ▲강종석⁸⁵
▲김구섭⁷⁶ ▲김태식⁸²
▲박동영⁸⁵ ▲박성민⁸⁷
▲서석원⁸⁸ ▲서정협⁸⁷
▲송동섭⁸⁵ ▲안선아⁸⁹
▲유지열⁸⁸ ▲이용순⁸³
▲이현수⁸⁹ ▲장홍근⁸⁵
▲정재호⁷⁷ ▲정충기⁸⁵
▲황기호⁸²

◇自然科學大學

▲강병산⁷⁶ ▲강승열⁸⁷
▲금중해⁸⁰ ▲박경범⁸²
▲박영아⁸³ ▲박영희⁸⁷
▲박진호⁸⁸ ▲손중모⁸⁷
▲양원호⁸⁹ ▲유재준⁸⁴
▲이병홍⁷⁶ ▲이상현⁸⁹
▲이승훈⁸⁹ ▲이찬서⁸⁷
▲최정원⁸⁵ ▲허영덕⁷⁷

◇家政大學

▲김의숙⁷⁶ ▲남윤숙⁷⁴
▲이선영⁸² ▲이현래⁸⁶
▲이효진⁸⁴ ▲하경미⁸²

◇看護大學

▲원윤남⁵⁷

◇經營大學

▲권혁무⁷⁹ ▲김 철⁸⁴
▲김석주⁸⁴ ▲류상기⁸²
▲박창수⁸⁷ ▲원재연⁸⁶
▲하현봉⁸⁶ ▲홍정범⁸⁶

◇工科大學

▲장석운³⁸ ▲정재구⁴⁶
▲신현묵⁴⁸ ▲윤영수⁴⁷
▲정환구⁴⁹ ▲강경복⁷³
▲강성언⁶⁹ ▲경종민⁷⁵
▲고용서⁷⁹ ▲곽광우⁶³
▲권동일⁷⁹ ▲김 순⁷⁰
▲김건호⁶⁸ ▲김관형⁸³
▲김국호⁶⁹ ▲김규태⁸³
▲김기욱⁸³ ▲김기현⁶⁰
▲김척호⁶⁴ ▲김도현⁷⁹
▲김병규⁵⁰ ▲김생수⁶³
▲김성수⁷⁹ ▲김성준⁶⁷
▲김시환⁷⁰ ▲김영국⁶⁶
▲김영길⁶⁴ ▲김영천⁶⁵
▲김용길⁵⁶ ▲김의수⁸¹
▲김인상⁷¹ ▲김인수⁷⁹
▲김인영⁷⁶ ▲김종훈⁴⁹
▲김주영⁶⁵ ▲김지환⁸²
▲김진근⁶⁸ ▲김진근⁷⁵
▲김진철⁷⁰ ▲김철순⁵⁷
▲김춘영⁵⁸ ▲김충기⁶⁵
▲김학천⁷² ▲김형주⁸²
▲남 훈⁶⁴ ▲노무수⁶⁷
▲노철균⁷⁴ ▲류기현⁶⁹
▲류명선⁸⁸ ▲문수길⁷³
▲민상열⁸³ ▲박 강⁸⁶
▲박 훈⁶⁷ ▲박경호⁷²
▲박광표⁵⁴ ▲박기철⁸⁰

▲박두화⁵⁵

▲박석준⁶⁵ ▲박수안⁷⁶
▲박신규⁶⁸ ▲박의동⁷⁷
▲박재성⁸⁹ ▲박정근⁷¹
▲박정대⁶⁷ ▲박향재⁷⁵
▲박형무⁷⁸ ▲박형순⁶⁵
▲배재홍⁷⁷ ▲서동균⁶⁹
▲서동호⁶³ ▲서선덕⁷⁹
▲성민제⁵² ▲송대호⁷²
▲송수영⁵⁵ ▲송영부⁷⁰
▲송진해⁷² ▲송태영⁶⁹
▲송효상⁷⁵ ▲신홍균⁵¹
▲안 섭⁸³ ▲안영철⁵⁸
▲양상현⁵³ ▲양승일⁶⁹
▲양승택⁶¹ ▲양협식⁸⁶
▲오경수⁶⁶ ▲오성환⁶³
▲오정섭⁸⁹ ▲오치남⁷¹
▲오희선⁸⁶ ▲원종희⁷⁹
▲위정호⁸⁷ ▲유환규⁵⁶
▲윤광언⁶⁸ ▲윤명진⁷³
▲윤우석⁶⁷ ▲윤정호⁷⁴
▲윤종철⁸⁹ ▲윤호기⁷⁴
▲이 민⁶⁴ ▲이정원⁶⁶
▲이광복⁷¹ ▲이동권⁷⁵
▲이두원⁶⁶ ▲이상건⁷⁸
▲이상기⁵¹ ▲이상희⁸²
▲이성배⁸² ▲이세혁⁷⁰
▲이승준⁶⁰ ▲이영상⁷⁷
▲이영우⁷⁹ ▲이완상⁵⁸
▲이완수⁶⁸ ▲이용석⁵⁵
▲이용철⁸⁹ ▲이우길⁶⁷
▲이우연⁵⁵ ▲이윤후⁵⁸
▲이익용⁶¹ ▲이정구⁶⁶
▲이종웅⁶⁷ ▲이준상⁷¹
▲이준환⁵⁶ ▲이찬진⁸⁹
▲이형구⁸⁶ ▲이환수⁷⁵
▲이희영⁷¹ ▲임기철⁷⁹
▲임채영⁸⁸ ▲임한구⁷³
▲장 석⁶⁵ ▲정순천⁷⁰
▲정운택⁵⁹ ▲정주창⁶⁴
▲정진경⁵² ▲정진승⁶⁴
▲정창우⁷³ ▲정철수⁷⁵
▲조영호⁶⁸ ▲조용학⁸¹
▲조희연⁷¹ ▲주재회⁷⁹
▲진행섭⁷⁰ ▲차정식⁶⁹
▲최동규⁷⁰ ▲최발렬⁷⁶
▲최병선⁷¹ ▲최용렬⁶⁴
▲최호진⁸² ▲한두현⁶³
▲한보식⁵⁰ ▲허태림⁶⁹
▲홍해남⁷⁷ ▲황계문⁷¹
▲황호남⁷¹ ▲남기동⁴³

◇農科大學

▲박호건⁴⁵ ▲백세기³¹
▲윤태규⁴⁸ ▲이창우⁴⁹
▲권명규⁷² ▲권원준⁶¹
▲권태걸⁶³ ▲김만옥⁶⁶
▲김병우⁸⁵ ▲김상혁⁷⁰
▲김세겸⁶³ ▲김영중⁶⁴
▲김우원⁵⁸ ▲김원호⁶⁰
▲김익수⁸⁸ ▲김정기⁶¹
▲김종현⁵⁹ ▲김진규⁵⁸
▲김태혁⁷³ ▲김홍철⁵⁴
▲김훈동⁶⁹ ▲박병두⁷⁹
▲박원규⁶⁴ ▲박윤복⁷⁴
▲박응봉⁵⁴ ▲박창용⁶⁹
▲박한동⁵⁵ ▲박홍목⁶⁰
▲배종선⁷¹ ▲백종철⁷²
▲서인식⁶⁶ ▲송기면⁸⁰
▲송춘중⁵⁹ ▲신건성⁶⁶
▲신광철⁶¹ ▲안건용⁵⁶
▲안상원⁸¹ ▲양광남⁶⁵
▲오근배⁶⁰ ▲오승환⁶¹
▲오시권⁵² ▲오윤진⁶⁰
▲유기형⁵⁸ ▲유인천⁵⁷
▲윤충섭⁶¹ ▲이경희⁵⁸

▲이금수⁵⁵

▲이돈균⁶⁴ ▲이석기⁶⁷
▲이석태⁷⁰ ▲이종대⁷⁰
▲임상봉⁸⁶ ▲장순영⁵⁶
▲장운룡⁵⁵ ▲전현기⁷¹
▲정병기⁶⁸ ▲정을규⁶⁵
▲조규욱⁶⁸ ▲조진태⁵⁸
▲조희준⁶¹ ▲최동균⁶³
▲최유봉⁶⁶ ▲최종현⁵⁰
▲최현준⁶⁰ ▲한상욱⁶¹
▲한중희⁶¹ ▲허용갑⁸⁸
▲현의송⁶⁵ ▲현호언⁵⁷
▲홍갑선⁵⁹ ▲홍성구⁷²
▲홍성하⁷⁵

◇文理科大學

▲원홍균³² ▲이해구³¹
▲채관석²⁹ ▲강진원⁵⁹
▲고광희⁷¹ ▲고영복⁵⁴
▲구맹희⁶⁴ ▲권영조⁶⁵
▲권오양⁷² ▲권오용⁶⁵
▲김경수⁵³ ▲김덕룡⁵⁶
▲김동익⁷⁰ ▲김동학⁵⁷
▲김명수⁵⁸ ▲김민영⁷¹
▲김상균⁷⁰ ▲김순민⁶⁰
▲김영필⁵⁶ ▲김영호⁴⁹
▲김용성⁵⁰ ▲김용수⁶³
▲김운룡⁶⁷ ▲김인순⁶¹
▲김정애⁷⁰ ▲김종운⁵⁷
▲김주철⁶⁷ ▲김주태⁵⁸
▲김태욱⁶⁴ ▲김형태⁵⁴
▲김호준⁶⁵ ▲김흥기⁷⁴
▲김희영⁵⁶ ▲노영립⁷⁰
▲도재범⁶⁷ ▲문 룡⁵⁸
▲문광웅⁶⁵ ▲박세웅⁶⁵
▲박재만⁵⁸ ▲백영철⁶⁶
▲백재현⁴⁸ ▲백태남⁶⁵
▲변창명⁶⁰ ▲서연호⁶¹
▲서정욱⁶⁴ ▲소광섭⁶⁸
▲송규정⁶⁷ ▲송영오⁷⁰
▲신경민⁷⁵ ▲신동균⁶³
▲신병진⁵⁷ ▲신중성⁷⁴
▲안병규⁷⁴ ▲안용수⁵⁷
▲오생근⁷⁰ ▲오재규⁵²
▲오희갑⁶⁸ ▲우종택⁵⁷
▲윤정목⁷² ▲이 철⁷¹
▲이건무⁶⁹ ▲이경덕⁷⁰
▲이경재⁶³ ▲이덕흥⁶⁰
▲이병철⁷³ ▲이상섭⁵²
▲이수근⁶² ▲이수우⁵²
▲이영재⁶⁶ ▲이재호⁶⁰
▲이정명⁶⁶ ▲이정세⁵⁷
▲이창민⁶⁶ ▲이희열⁷¹
▲인오룡⁷⁴ ▲장영선⁶³
▲장운걸⁴⁸ ▲정민희⁶⁰
▲정주년⁶⁵ ▲정철현⁶²
▲정추회⁶¹ ▲조요한⁵³
▲조홍래⁶⁷ ▲지건길⁶⁶
▲차홍봉⁶⁹ ▲채영복⁵⁹
▲최 진⁶⁰ ▲최명근⁶¹
▲최임순⁵³ ▲추호석⁷³
▲한상준⁴⁸ ▲허 룡⁶⁵
▲허두표⁶⁴ ▲허성희⁷⁵
▲홍경화⁵⁸ ▲홍성길⁶⁴
▲홍순모⁵⁶ ▲홍순호⁶⁶
▲홍주봉⁷³

◇美術大學

▲강남미⁷⁴ ▲김 범⁸⁶
▲김형주⁷⁰ ▲노명자⁶⁷
▲문 주⁸⁶ ▲민병목⁵⁹
▲박대희⁸⁵ ▲박정호⁵⁵
▲부현일⁶⁴ ▲성옥희⁵⁸
▲안명숙⁷¹ ▲오세원⁶⁵

▲윤옥진⁶⁸

▲이동훈⁶⁶ ▲이상갑⁷⁰
▲이성욱⁷⁴ ▲전경욱⁸⁰
▲함인화⁷³

◇法科大學

▲최세중⁴⁶ ▲최형준⁵⁶
▲김병규³⁶ ▲김주홍³⁹
▲소진섭³⁷ ▲이종진⁴²
▲최원백⁴¹ ▲신현학⁴³
▲현승중⁴³ ▲강 용⁶⁵
▲강동세⁸¹ ▲강동호⁵⁶
▲강상열⁶¹ ▲강신경⁶¹
▲고영준⁶³ ▲구본성⁷⁶
▲권순일⁶¹ ▲김경원⁵⁴
▲김대식⁷⁹ ▲김대천⁶³
▲김동화⁸¹ ▲김백영⁶⁵

▲김상갑⁵⁸ ▲김성원⁵⁰
▲김영상⁵⁹ ▲김영일⁶⁶
▲김용채⁷⁵ ▲김원주⁵⁷
▲김윤철⁵² ▲김재형⁵⁶
▲김정삼⁷⁶ ▲김정홍⁶⁴
▲김종혁⁶⁴ ▲김천구⁵⁵
▲김태우⁷⁷ ▲김필곤⁸⁵
▲김홍한⁴⁹ ▲도홍석⁶⁰
▲류시열⁶¹ ▲명동성⁷⁷
▲문성우⁷⁹ ▲박동완⁶⁸
▲박보무⁶¹ ▲박성민⁷⁰
▲박성준⁸⁹ ▲박성진⁸⁹
▲박윤해⁸⁸ ▲박재영⁶⁶
▲박재원⁶¹ ▲박충순⁵⁶
▲박해봉⁸⁷ ▲박호서⁷⁷
▲방인걸⁸⁹ ▲백인기⁵⁶
▲변승천⁸⁷ ▲변현철⁸⁴
▲서돈양⁶⁰ ▲설명자⁶⁵
▲성봉경⁸² ▲손기호⁸³
▲손종대⁷⁰ ▲송윤재⁵⁸
▲신기택⁶⁰ ▲신삼규⁶¹
▲신희구⁷¹ ▲안병만⁶⁴
▲안병우⁷⁰ ▲안성희⁷⁰
▲안운선⁶² ▲양영철⁸⁶
▲엄병윤⁶⁴ ▲여춘동⁵⁹
▲오동섭⁶⁹ ▲오문희⁷⁰
▲오성식⁵² ▲오진환⁷⁹
▲우성만⁸⁰ ▲원명희⁵⁹
▲유문억⁵⁸ ▲유원규⁷⁵
▲윤만준⁷⁰ ▲이 용⁶⁰
▲이관진⁵⁸ ▲이근일⁶⁷
▲이금철⁷² ▲이덕구⁵⁸
▲이성범⁷⁴ ▲이승용⁶⁴
▲이용현⁵⁰ ▲이원석⁴⁷
▲이인상⁵⁷ ▲이재호⁶⁶
▲장덕후⁷⁵ ▲장영철⁶⁶
▲전봉원⁶⁶ ▲전팔현⁵⁶
▲정덕영⁶⁴ ▲정우영⁸³
▲정중우⁶⁹ ▲정주석⁶⁵
▲정호영⁷⁰ ▲조익래⁶⁰
▲조종현⁵⁵ ▲조현수⁸²
▲주경진⁶⁰ ▲천성관⁸⁰
▲최병수⁶⁰ ▲한근우⁴⁹
▲한만기⁸⁰ ▲한정길⁶⁸
▲허남훈⁶² ▲허택원⁵⁷
▲홍광식⁷¹ ▲홍지욱⁸⁴

◇師範大學

▲김원태³² ▲김기원⁵⁶
▲박용중⁴⁶ ▲오정호³⁹
▲이진방³⁵ ▲정국진⁴⁰
▲제옥례³⁵ ▲황진한⁴⁶
▲김귀인⁴¹ ▲김금순³⁶
▲김남득³⁷ ▲오길임⁴⁴
▲이사행⁴⁵ ▲이영배⁴⁴
▲권행준⁷³ ▲김경미⁸⁹
▲김덕민⁴⁹ ▲김동배⁶²
▲김동찬⁵⁵ ▲김병수⁶⁴

서울대총동창회 국민카드

“
회원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발급기간: 4월 1일 ~ 4월 30일

법 인

◇성업공사 徐聖英(64년 法大卒)=1좌

◇유니텔상사 金恒根(56년 工大卒)=1좌

◇경인강재(주) 崔正吉(56년 工大卒)=1좌

◇쌍용정유(주) 金鮮東(63년 工大卒)=1좌

◇아남정공(주)광학사업 鄭憲泰(55년 師大卒)=2좌

◇제일엔지니어링 崔鎮澤(65년 工大卒)=5좌

◇(주)경우 金泳宗(64년 農大卒)=2좌

◇(주)거가건설 李元相(66년 藥大卒)=2좌

개 인

◇人文大學

▲남기경⁸⁶ ▲박종덕⁷⁸
▲서원석⁷⁸ ▲정병문⁸¹
▲최승현⁷⁶

◇社會科學大學

▲구진성⁸⁸ ▲권이용⁸⁵
▲김영환⁸⁹ ▲김재근⁷⁶
▲김준하⁸⁸ ▲백형기⁸⁶
▲송승주⁸⁷ ▲윤형중⁸⁸
▲이건수⁸⁹ ▲전명근⁷⁷
▲정두언⁸⁰ ▲최재호⁸⁹

◇自然科學大學

▲노주현⁸⁸ ▲오달균⁸⁰

◇家政大學

▲조성단⁷³

◇經營大學

▲성태홍⁸⁷ ▲송연호⁸⁷
▲이성희⁷⁸ ▲이호선⁷⁹

◇工科學大學

▲강근택⁷⁶ ▲강명수⁸¹
▲강성원⁸¹ ▲곽명석⁸⁹
▲곽명운⁸⁵ ▲김중석⁸⁹
▲김진길⁸³ ▲김학기⁸⁹
▲김학수⁸⁶ ▲김현철⁸²◇도삼주⁸⁸ ▲명계복⁶⁰▲변순천⁸⁹ ▲신동식⁵⁵
▲안재민⁸⁷ ▲염사연⁷¹
▲오양환⁷³ ▲오재규⁵²
▲윤영철⁷⁰ ▲이인주⁷⁰▲정규석⁷⁶ ▲조희원⁵⁸
▲최영해⁵⁸ ▲최익권⁷⁴
▲최준식⁴⁵ ▲현명호⁷³

◇獸醫科大學

▲문 응⁸⁸ ▲민순기⁷²
▲서기문⁵⁸ ▲신창섭⁸⁹
▲원문상⁶⁶ ▲정문교⁸¹
▲조명래⁷⁴

◇藥學大學

▲권용수⁸⁴ ▲김기술⁷⁵
▲문창규⁷⁸ ▲신대운⁷⁶
▲이만재⁶⁰ ▲이원상⁶⁶
▲정왕윤⁵⁸ ▲조남주⁸⁵
▲조양래⁷⁶ ▲최상호⁷¹
▲현덕성⁷⁰

◇農科大學

▲김영섭⁸⁹ ▲박정수⁶⁹
▲박창언⁸⁴ ▲유석형⁸⁴
▲윤여성⁸³ ▲이전웅⁸⁸
▲전영수⁶⁶ ▲허용갑⁸⁹
▲홍대립⁷² ▲홍태식⁸¹
▲황영자⁸³

◇文理科學大學

▲김병익⁸¹ ▲김종대⁵⁹
▲김희상⁷³ ▲류재갑⁷⁰
▲박재길⁷⁵ ▲박주기⁸⁴
▲백두현⁸¹ ▲백영근⁵⁹
▲석문식⁷⁴ ▲양규모⁸⁵
▲이병화⁸⁸ ▲이병혁⁷¹
▲이 용⁷⁴ ▲이용일⁷³
▲이종석⁸⁸ ▲정광섭⁸⁴
▲최영부⁸⁷ ▲허운욱⁸⁴

◇美術大學

▲김신현⁸² ▲이기조⁸⁷
▲장선결⁸⁵

◇法科大學

▲강경식⁸¹ ▲강영순⁷⁶
▲강인현⁸² ▲김외숙⁸⁹
▲김용제⁸⁷ ▲김태구⁷¹
▲박충근⁷² ▲서삼영⁸⁹
▲심명철⁸¹ ▲유화선⁸³
▲이광진⁸¹ ▲이성규⁸⁶
▲이영욱⁸⁶ ▲이택돈⁸⁷
▲이한경⁸⁶ ▲전수철⁸⁷
▲한명수⁷⁴ ▲홍성만⁷⁵

◇師範大學

▲김국희⁸⁹ ▲서동욱⁸⁸
▲서은경⁸⁰ ▲이은희⁸⁹
▲이지연⁸⁶ ▲이희원⁷⁹
▲장영호⁸¹ ▲조 훈⁸⁵
▲한예석⁸²

◇大學院

▲김응진⁴⁹

◇保健大學院

▲김종오⁸²

◇新聞大學院

▲강대근⁷⁶

◇行政大學院

▲이민우⁷⁶

▲김순중⁵⁷ ▲김영민⁷⁸
▲김영태⁵⁷ ▲김용신⁸²
▲김원석⁶¹ ▲김정식⁶⁵
▲김종수⁵⁶ ▲김종환⁵⁷
▲김중언⁶⁸ ▲김철련⁶¹
▲김충식⁶⁴ ▲김충용⁶⁵
▲김태언⁶⁶ ▲남한식⁵⁵
▲노병룡⁶⁰ ▲문영권⁶⁴
▲박상일⁵⁰ ▲박세창⁷⁹
▲박수일⁶⁵ ▲박종곤⁶⁴
▲서윤수⁴⁸ ▲성홍경⁶¹
▲손영국⁷⁴ ▲신성택⁶²
▲신용필⁵⁶ ▲신하영⁶³
▲신형범⁷⁸ ▲심형섭⁶⁴
▲안광일⁶⁵ ▲안영숙⁵⁶
▲안인애⁶⁰ ▲오정환⁶⁶
▲유문상⁵⁶ ▲유재만⁶⁹
▲윤기정⁷² ▲이계학⁶²
▲이기봉⁵⁸ ▲이기태⁶⁵
▲이완식⁶¹ ▲이원교⁵⁷
▲이일규⁵¹ ▲이중석⁶³
▲이현재⁶¹ ▲장동우⁷⁶
▲장병환⁵⁶ ▲전은선⁵¹
▲전팔근⁵² ▲정기숙⁵⁹
▲정병현⁷⁷ ▲정정자⁶⁰
▲조기호⁵⁸ ▲조준목⁵⁴
▲지금수⁶⁰ ▲최규봉⁵⁵
▲최규순⁶⁵ ▲최기남⁵⁶
▲최병선⁵⁸ ▲최영락⁵⁹
▲최종숙⁶⁹ ▲최홍진⁵³
▲한경수⁶² ▲한병길⁷⁹
▲한성홍⁷⁷ ▲한정식⁵⁹
▲현병훈⁶⁶

◇商科大學

▲김관채⁴⁶ ▲김재현⁴⁵
▲강영주⁶⁶ ▲강영중⁷⁰
▲고경식⁶⁷ ▲곽지용⁵³
▲권영식⁷⁴ ▲구충부⁶⁷
▲구태서⁶³ ▲권계홍⁶³
▲권찬준⁶⁷ ▲김광태⁶⁸
▲김부규⁶⁰ ▲김삼대⁷⁵
▲김열회⁵⁸ ▲김완수⁷⁰
▲김용국⁶⁹ ▲김윤경⁵⁷
▲김주한⁷⁵ ▲김주호⁵⁴
▲김준식⁷⁰ ▲김진화⁶⁵
▲김창진⁶² ▲김철배⁵³
▲김태연⁶⁵ ▲남상운⁸⁴
▲문수만⁶⁴ ▲문운룡⁶⁵
▲문학모⁶⁴ ▲민은홍⁶²
▲박만철⁶² ▲박무웅⁶⁸
▲박병렬⁵⁴ ▲박상영⁵⁹
▲박정진⁵⁷ ▲박정하⁶⁹
▲박종석⁶⁹ ▲배영한⁵⁸
▲백기환⁵⁷ ▲변광현⁶⁸
▲변찬의⁷¹ ▲손가창⁶²
▲손성철⁵⁹ ▲송정위⁶⁶
▲안국신⁶⁹ ▲안기수⁵⁷
▲양승우⁷² ▲양해성⁷²
▲오기화⁶³ ▲유노상⁶⁴
▲유만조⁶¹ ▲유방창⁶⁵
▲유선주⁶⁵ ▲유한교⁵⁷
▲윤 효⁶⁵ ▲윤수병⁵⁷
▲윤정근⁵⁸ ▲윤제철⁷⁰
▲이건삼⁶⁴ ▲이관규⁶⁵
▲이기철⁶¹ ▲이문원⁷⁰
▲이성희⁷⁴ ▲이세장⁵⁹
▲이영탁⁶⁹ ▲이영호⁶⁹
▲이용진⁷² ▲이원승⁶⁴
▲이좌영⁶² ▲이철주⁶⁵
▲이해익⁶⁴ ▲이홍일⁷⁴
▲인수환⁵⁸ ▲장광명⁶⁴
▲장덕원⁷⁰ ▲장병완⁷⁵
▲전문준⁷¹ ▲전수영⁶⁴
▲전재송⁵⁷ ▲전창모⁷²
▲정광홍⁶² ▲정방언⁶⁸

▲정상용⁶⁸ ▲정연필⁵²
▲지상진⁵⁷ ▲지현균⁶⁴
▲최대현⁶¹ ▲최정완⁵⁷
▲최주혁⁶⁶ ▲하상용⁸²
▲함규중⁶⁹ ▲현임중⁶⁰
▲홍일표⁶³ ▲황규백⁶⁹
▲황상교⁵⁷

◇獸醫科大學

▲강성봉⁷² ▲김본원⁶⁷
▲김선일⁷⁰ ▲김창기⁵⁸
▲남궁선⁶¹ ▲박승도⁷⁰
▲방효범⁵⁹ ▲윤석순⁶⁴
▲이형우⁵⁵ ▲전세규⁵⁴
▲최용석⁷⁸ ▲한기영⁶⁰

◇藥學大學

▲배운도⁴¹ ▲방창학⁴⁹
▲한복영⁴⁹ ▲김경영⁶⁸
▲김권호⁵⁶ ▲김문갑⁵⁸
▲김석기⁵³ ▲김재기⁵⁷
▲김조한⁵⁹ ▲김한주⁶¹
▲민경원⁵⁵ ▲박명환⁷⁷
▲신정균⁵⁹ ▲심우원⁷⁶
▲안영근⁵⁶ ▲용근호⁵⁸
▲원상필⁵⁸ ▲유원근⁶⁸
▲이규송⁵⁷ ▲이성애⁶²
▲이재현⁸¹ ▲이홍희⁸⁵
▲전계수⁶² ▲최진선⁵⁵
▲편승범⁵⁵ ▲황광진⁶⁹
▲황영욱⁶¹

◇音樂大學

▲이학주⁵⁰ ▲김형순⁷²
▲김홍인⁶⁹ ▲김희태⁵⁷
▲박지영⁸⁸ ▲백혜숙⁷⁵
▲송복자⁸⁸ ▲이동남⁷⁰
▲이방숙⁶⁵ ▲정규주⁷⁷
▲최소희⁶⁰ ▲한혜자⁶⁵

◇醫科大學

▲김덕호⁴¹ ▲박재덕⁴¹
▲강진영⁷³ ▲고영도⁸⁷
▲국형철⁸³ ▲기정일⁶⁵
▲김경남⁷⁸ ▲김낙률⁶³
▲김명준⁶³ ▲김법성⁸⁴
▲김병국⁷⁰ ▲김용진⁷⁵
▲김용태⁸⁸ ▲김우영⁴⁹
▲김창원⁸¹ ▲김치환⁷⁹
▲김한수⁸⁸ ▲남궁건⁷³
▲명나혜⁸⁸ ▲박건녕⁶⁹
▲박동립⁵⁶ ▲박순일⁵⁷
▲박승일⁸⁵ ▲박용원⁸³
▲성수현⁴⁷ ▲송계승⁸⁰
▲송선보⁴⁷ ▲신영태⁷³
▲안병완⁷⁶ ▲엄원호⁶¹
▲오준호⁵¹ ▲웅상길⁶⁴
▲유세환⁶⁴ ▲유종근⁷⁷
▲윤경선⁶⁹ ▲이경욱⁵⁸
▲이병숙⁸⁰ ▲이상일⁴⁷
▲이인성⁶³ ▲이호성⁶⁸
▲이홍균⁶³ ▲임영훈⁵⁰
▲임용성⁸⁵ ▲장영길⁶⁴
▲정광원⁶³ ▲정문현⁸³

▲정운혁⁴⁹ ▲정화자⁶⁶
▲조규정⁸⁷ ▲주원식⁸²
▲지선규⁵⁶ ▲최용언⁵⁶
▲최일형⁵¹ ▲한태형⁶⁵
▲한홍모⁵¹

◇齒科大學

▲변광주⁴² ▲이영욱⁴¹
▲최원중⁴³ ▲노지섭⁴⁹
▲윤대영⁵¹ ▲최병민⁵⁰
▲강운모⁸⁶ ▲권오균⁸³
▲김 현⁷³ ▲김각균⁷⁸
▲김경남⁸³ ▲김광주⁷⁵
▲김기국⁷⁰ ▲김연만⁶⁹
▲김중홍⁵⁹ ▲김진용⁸⁷
▲김채중⁷⁴ ▲김태인⁵⁶
▲김현태⁸² ▲민병무⁸⁰
▲민병회⁸⁰ ▲박경욱⁷³
▲박연수⁵⁴ ▲박용환⁸⁴
▲박용환⁷³ ▲배응준⁵⁹
▲백승진⁸³ ▲신동인⁸³
▲양재영⁷⁶ ▲오명희⁸⁰
▲오성근⁵⁵ ▲우진오⁷⁸
▲유동환⁸⁴ ▲은세원⁸⁵
▲이광건⁷⁹ ▲이순득⁶¹
▲이정형⁵⁸ ▲장병천⁷⁴
▲장영일⁷⁰ ▲정규배⁸¹
▲정대현⁷⁶ ▲제갈선영⁷¹
▲조달문⁶⁸ ▲조한준⁵⁷
▲최수광⁶¹ ▲최종석⁸²
▲한중석⁸³ ▲함병도⁸¹

◇大學院

▲김인배⁸⁸ ▲김제훈⁷²
▲나기덕⁸⁴ ▲민경식⁷⁹
▲박승덕⁶⁴ ▲박을룡⁶⁹
▲박재영⁷² ▲신경환⁷¹
▲이 준⁷⁷ ▲정기화⁷¹
▲정병희⁶² ▲조찬성⁷⁵

◇經營大學院

▲김동성⁷⁰ ▲이정부⁷¹

◇教育大學院

▲변정숙⁶⁶ ▲이학원⁷⁴

◇保健大學院

▲김상옥⁶⁹ ▲김영웅⁷⁷
▲이영근⁶⁵ ▲전석락⁶⁹

◇司法大學院

▲전도영⁷⁰

◇行政大學院

▲김길조⁶⁴ ▲김형태⁶⁵
▲노일숙⁸⁵ ▲박재석⁷³
▲박찬도⁶⁶ ▲장준규⁶⁷
▲최재범⁷⁷ ▲허재영⁶²

◇環境大學院

▲김현선⁸³ ▲박무웅⁸⁰
▲안영식⁸⁴ ▲이상원⁸⁹
▲이장수⁷⁴ ▲이필수⁷⁷
▲허일도⁸³

-알 림-

6월 1일자로 은행지로업무의 실시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되고 우체국 및 농·수·축협에서도 지로용지를 이용한 회비납부가 가능해졌습니다.

동문여러분의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지로번호 7500875